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56.88	↓ 코스닥	912.55
	(+9.20)		(-1.63)
↑ 금리 (미국 9년)	3.865	↓ 환율 (원/달러)	1331.10
	(+0.070)		(-2.30)

‘서울 모든 대중교통 6.5만원에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사내이사 ‘독립성’ 우려 여전 이사회 조직 내 감사위도 모순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마비된 내부통제 시스템

<중> 감사위원회의 허점

11개 은행, 3분의2 이상 사외이사 지배주주 의사 반영 가능성 높고 회의만 하고 재무제표 볼 일 없어 독립적 상근감사 도입 목소리도

지난해 A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이뤄졌다. 최근 B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 횡령사고 또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수 년 동안 진행된 횡령을 은행 내부에서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감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1차 책임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허술이다. 경영진은 기업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 회사의 회계감사, 리스크관리, 준법감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감사

<은행별 감사위원회 현황>

	총인원	상임감사	사외이사
국민은행	3	1	2
신한은행	3	1	2
하나은행	4	1	3
우리은행	3	1	2
부산은행	4	1	3
경남은행	4	1	3
대구은행	3	1	2
광주은행	5	1	4
전북은행	3	1	2
카카오뱅크	3	0	3
케이뱅크	4	0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결과다.

◆ 형식적 감사 비중 ↑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의 대부분은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상법에는 이 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고 있지만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인 경우도 적지 않다. 회사로 출근하는 상근감사가 없어 해당 회사의 리스크관리 자체가 쉽지 않은

구도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 등 11개 은행을 살펴본 결과 이들 감사위원회 모두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었다. 그 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채웠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 입김에 따라 상임감사를 선임하거나 연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며 “사외이사로만 구성될 경우 내부 영향은 더 받기 어려워 독립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외이사라는 직책은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1년간 4회 이상의 이사회에 출석해 회의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회사에 출석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사내 감사조직이 올린 보고서를 열람하고 승인하는 것 외에 재무제표를 볼 일이 없다. 본다고 한 들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뿐 제공하지 않는 기초자료와 절차를 확인하며 일일이 조사할 가능성도 낮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작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11일 경기도 수원시 조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선생님과 진학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일반대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전문대(1차)는 이날부터 10월5일까지 대학별로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전문대 수시 2차 원서 접수는 오는 11월10~24일이다.

/뉴스1

尹, 이르면 이번주 소폭 개각 국방 신원식, 문체 유인촌 유력

‘잼버리 책임’ 여가부 포함 가능성
‘총선 차출’ 대통령실 참모 인사도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소폭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엔 국방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유력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 중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채상병 논란 이외에도 흥분도 장군의 흥상 철거 논란으로 야당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국방부 장관 교체로 국정 동력의 확보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교체될 경우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65)이 거론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71)이 거론된다. 지난 7월 임명된 유인촌 특보는 8월에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아이돌 그룹 ‘피프티 피트피’ 사태 등 현황을 청취하는 등 보폭을 넓혀왔다.

준비 부족, 부실 대응으로 얼룩진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책임을 주무부처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임 인사로는 김해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64)가 하마평에 오르지만,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선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각과 함께 총선 출마를 위한 대통령실 참모의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총선 차출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진우 법률·강명구 국정기획·전희경 정무1등 비서관급 인사의 총선 출마도 이야기가 나온다. 총선 경쟁력이 높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의 차출도 예상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화웨이, SK하이닉스 메모리 어떻게 가져다 썼나

中 현지대리점 유출, 제3국 ‘우회수입’ 가능성

“누구든 살아남기 힘들 것”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에 국산 메모리가 탑재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유통 ‘구멍’이 어디였을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 정부 조치를 누가 어떻게 위반했는지 따라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서다. 중국 현지 유통업체의 ‘기행’이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조사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상당 물량을 B2B 방식으로 직접 계약을 통해 공급한다.

웨이퍼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주문에 따라 간단한 패키징을 거쳐 해당 업체에 바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제품은 물량이 적지 않은 만큼 이같은 방식을 선호한다는 전언이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미국 제재가 시작된 이후 화웨이와 완전히 거래를 끊었다. 이후 미국 상무부 지침에 따라 공급사와 거래선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화웨이와 거래했을 가능성이 없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들도 SK하이닉스가 화웨이와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유력한 유통 경로는 중국 현지 대리점을 통한 유출이다. 메리츠증권 김선우 연구원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제조사들은 독립 대리점을 통한 유통을 선호한다. 때문에 메모리 업계는 여전히 현지 대리점을 통해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경우도 구멍이 생기기 쉽지 않다. 반도체 공급 업체는 현지 대리점에 공급할 때도 화웨이에 공급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최종 공급사

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도 마찬가지다. 만약 현지 대리점이 화웨이에 몰래 물량을 전달한다면 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현지 대리점과 계약시에는 철저한 검증도 거치고 있다. 거래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실적을 이룬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와만 거래한다. 회사 경영과 지분 관계는 물론 그동안 어떤 회사와 거래하는지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계약시 대금 지급 능력을 보기 위해 신용등급은 물론이고 미국 무역 규제 후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도 철저히 따져본 후에서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부 “일본 오염수 1차 방류, 오늘 종료… 삼중수소 정상”
/사진 뉴스1
▲ 홍준표 “국방부가 정치 중심에 서면 나라가 휘둘러”

▲ 해직 언론기관장들 “비판 언론에 폭거… 쿠데타 수준”
▲ 고용장관, 산하기관 ‘징계직원 성과급’에 “조속히 시정” 지시



▲ 조태웅 “시진핑 방한, 기대해도 돼… 중, 관계 개선 의지 분명”
▲ 이주호 “이번 주가 교관보호 4대입법 고비”… 호소문 발표
/사진 뉴스1

“지하철·버스·따릉이까지… 월 6만5000원에 무제한 이용”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내년 1~5월 시범판매 후 정식운영
경기·인천과 ‘수도권 확대’ 논의
서울 승차, 타지역 하차시 이용
시외지역 승차할때는 이용 불가
연 1.3만대 승용차 이용감소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내년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부터 버스,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벌인다. 시는 수도권 전역에서 통합 환승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인천시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분야의 신 패러다임이다. 이 이름 안에 정책 구상의 뜻이 다 들어 있다”며 “탄소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교통복지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업 네이밍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모두 기후변화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롯된 고물가, 고금리가 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겼다”면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어렵게 결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단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생업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고민을 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의 가격으로 내년 1~5월 시범 판매된다.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로 한 달간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최초에 3000원으로 구매하면 뒤 매월 6만5000원을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시는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포함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이 상이한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지만, 시외 지역에서 타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 버스는 서울 시내라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울과 타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쓸 수 있다. 시는 향후 리버버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 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연 3만2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약 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포함 60회 기준)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정책 효과가 검증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 시장은 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인천, 경기도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가 정말 절실하다. 결국, 수도권은 교통에 관한 한 묶음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서울시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바라건대 인천시나 경기도가 적극 호응해 시범사업 기간부터 함께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하철과 버스가 적자라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했다고 했는데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재원을 마련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이제도가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조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750억원으로 예상하는데 지자체가 50%, 운송기관이 50%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큰 틀을 짰다. 거기에 맞춰 어떻게 부담이 어느 정도, 주는지를 봐 가며 디테일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추후에 숙제로 남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oul.co.kr



韓, 20년간 연간 근로시간 500시간 줄었다

경총, 근로시간 현황·추이 국제비교
연간 1904시간… 감소폭 OECD 1위
“韓, 장시간 근로 국가로 보기 어려워”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지난 20여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OECD 회원국 대비 연평균 18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손질 중인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에 노동시간 확대가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韓 실근로시간, OECD 국가 중 최대 폭 감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OECD와 한국 정부 통계를 활용해 한국과 OECD 회원국들의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1904시간이었다. 이는 OECD 평균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길었지만, 최근 그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이후 500시간 가량 감소해 OECD 평균 감소폭(47시간)보다 크게 줄었고 이런 감소폭은 조사 대상 35국 중 1위였다. 특히 통계적 연속성이 확보된 2011~2022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 감소폭은 215시간으로 OECD 평균 감소폭(20시간)의 10.8배에 달했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 소폭 높아

반면, 국내 풀타임(Full-time)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OECD 평균 대비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실근로시간은 기존 인식과 달리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풀타임(Full-time)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0시간이었으며, OECD 평균은 40.7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 41.0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1.3시간, 1.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주로 활용하는 산술평균 기준으로 OECD 평균과의 주당 실근로시간 차이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52시간정도다.

특히 경총은 이번 분석에서 파트타임을 제외한 풀타임 근로시간을 분석해 비교했다. 파트타임 근로까지 포함한 근로시간 비교는 장기 정책 판단에 적절치 않은 점을 감안했다.

예를 들어 작년 일본의 전체 임금근로자 실근로시간은 1626시간으로 한국과 278시간 차이 나지만, 일본의 파트타임 근로자(31.6%) 비중은 한국(17%)보다 크게 높아 총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이제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차이도 크게 줄었고,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근로시간과 국가간 통계 차이로 인한 오차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전반적인 장시간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남아있는 장시간 근로는 제도보다는 법 집행의 측면에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확대 유지되나

한편, 이번 결과로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노동시간 확대가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근로시간 개편 논란은 지난 3월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뒤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비난이 쏟아졌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사회의 회귀 및 소위 공짜 야근이 가능해진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개정안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5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에 들어갔다. 해당 설문조사는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중 발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제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도 달했다”면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7.2% 급증

고용부, 총 지급액 다시 1조 넘어서
신규신청자 8.7만명… 4개월째 증가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다시 1조 원을 넘어섰다. 또 20대의 고용보험 가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국내 일자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2%(6000명) 늘어났다. 증가폭이 4개월째 확대되고 있다.

신규신청자 수 증가폭은 올해 4월 3.1%에서 5월 2.1%로 둔화한 바 있다. 이후 6월 2.9%(2000명), 7월 4.4%(4000명) 등으로 반등한 데 이어 8월 들어 급증한 것이다.

고용부는 “건설업(2700명)과 교육서비스업(1900명), 제조업(1500명)을 중심으로 신규신청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8월 신규수급자를 포함한 총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62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1%(2만4000명) 늘었다.

총 지급액은 6.3%(618억 원) 불어난 1조4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6월 1조245억 원에서 7월 9582억 원으로 줄었으나 지난달 다시 1조원 대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도 16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원 늘었다.

지난달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2.4%(36만1000명) 증가한 152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849만 명으로 19만1000명, 여성은 673만5000명으로 17만 명 늘었다. 연령대별로 30대(7만4000명)와 40대(8000명), 50대(9만7000명), 60대이상(21만4000명)에서 증가했으나 29세이하(-3만1000명)만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정부, 원전수출 첫걸음 돕는다

5년간 기업당 20억 금융 지원

산자부 원전기업 밀착 지원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 제공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목표”

정부가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설비 중소·중견 수출기업 100곳을 집중 육성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초보 원전설비 기업에도 밀착 지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 진출 시킨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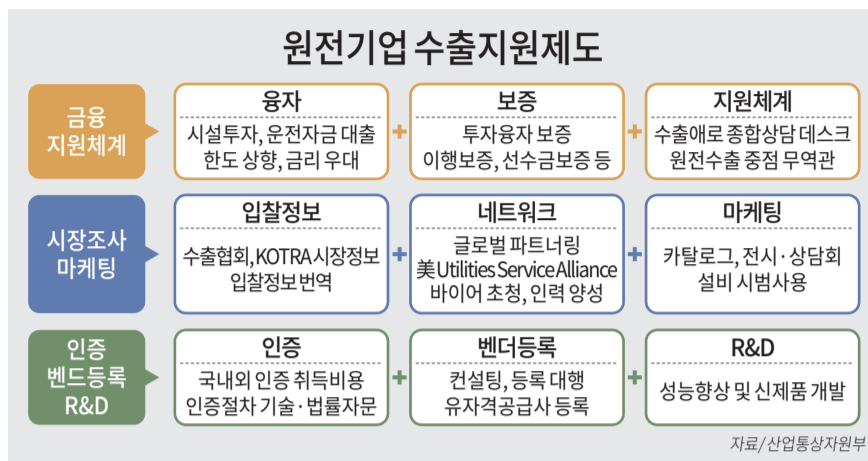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이 목표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이 확대되며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주요국들의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 제조 능력이 약화된 상태로,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린 셈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중인 원전은 57기로 1년 전보다 4기 늘었고, 계획중인 원전도 100기로 같은 기간 5기가 추가됐다. 또 올해 7월 기준 30년 이상 가동중인 원전이 전세계 원전의 66%를 차지해 원전 설비 수요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7~2021년)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억 3000만달러 수준으로, 수출방식은 공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건수 기준 9%에 불과하고 수출품목도 공조기, 밸브 등 비핵심 보조기기 중심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



이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원전수출 첫 걸음 프로그램 참여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런 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출경험은 없으나,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력과 수출 준비도, 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월께 10개사 내외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누적 60개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설비 독자수출 경험을 보유한 40개사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특히 기존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운영해온 마케팅·인증/등록·금융 등의 분야별 30개 수출지원 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해 기존 지원사

업과 차별화 해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KOTRA,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납품까지 지원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 30개 사업 중 최적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 규모는 금융지원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4억원, 5년간 20억원이며, 향후 참여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기관 간담회를 개최, 각 기관별 역할과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이승철 원전산업정책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원전설비 수출성장으로 이어지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20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원전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과 더불어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원전설비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장기금리 상승, 美 국채 영향”

한은 주담대·조달금리 추가상승 지적
“美 국채금리 움직임 면밀히 살펴야”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음에도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배경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정부의 조달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한·미 금리 동조화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묶은 이후인 지난 4월 말 3.36%에서 지난 8월 말 3.82%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42%에서 4.11%로 오른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국채금리는 오랜시간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며 “특히 국채금리는 만기가 길어 질수록 뚜렷하게 미국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0년물 한미 국채금리의 상

관계수는 금융위기 이전 0.57에서 위기 이후 0.7로 높아졌다. 계수가 높을수록 서로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다만 1·3년물 등 단기물 금리는 미국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미국 국채금리의 한국 국고채 금리에 대한 영향은 3개월물이 지난해 18%에서 올해 10%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1년물은 19%에서 14%로 축소됐다.

반면 10년물은 지난해 59%에서 올해 56%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장기물과 연계되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미국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질 수 있다”며 “미 국채금리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추석 황금연휴에 해외여행 수요 급증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난 가운데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여행상품 예약률은 지난 여름휴가 성수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카운터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IS

밀수·드론 등 비정상적 제품 유통시 ‘속수무책’

» 1면 ‘화웨이, SK하이닉스...’서 계속

문제는 현지 대리점이 ‘작정하고’ 빼돌렸을 경우다. 만약 이상 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제재 대상이 된 것은 물론, 신뢰 문제로 거래가 끊기면서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감수하고 화웨이와 몰래 거래를 했다면 사전에 막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제3국을 경유해서 들였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러시아나 북한 등 미국 규제를 받는 국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반입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들고 있다. 최근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가 중고차로 둔갑해 러시아로 흘러들어가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

메모리 공급사가 중국 대리점과 마

찬가지로 철저히 검증을 거치는 만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제재를 감수하고 몰래 빼돌렸다면 사전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화웨이가 완전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유통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규제 이후 홍콩이나 마카오와 국경 지역 보따리상을 통해서까지 반입이 불가능한 반도체와 장비 등을 밀수하고 있다.

심지어는 저공 비행 드론까지도 동원한다는 소문까지 돈다. LPDDR5D 램이 범용 제품이라 가능하다. 화웨이가 스마트폰 모듈을 해당 D램에 맞게 개발하면 된다.

한편 화웨이는 메이트60프로에 이

어 신형 폴더블폰인 메이트X5 출시도 예고한 상태다. 7나노 공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기린9000s 탑재 가능성이 높다.

중국 현지 소비자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현지 매체 등에서는 화웨이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애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리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신형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린9000s가 7나노 공정이면서도 EUV가 아닌 DUV를 쓴 탓에 충분한 수율을 내기도 어렵고 생산 비용도 일반 7나노 반도체 대비 몇배가 비싸기 때문이다.

/김재용 기자 juk@

“감사 책임 물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1면 ‘사내이사 독립성...’서 계속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하려 하지만, 이들이 선임할 때부터 지배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예를 참고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상근하는 감사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해야”

업무집행하는 이사회 하부조직으로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을 감사로 별도 규정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

장기업에는 감사 대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됐다.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하는데, 여기에 참석한 이사가 감사위원회에서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보면 경남은행의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와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총회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독립성이 없다면 감사의 제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제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인터뷰 | 김 영 태 코레일유통 사장

“6000억 매출목표, 대국민 서비스의 증명 타 교통수단 연계… ‘종합 모빌리티’ 첫 발”

지난 7일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코레일유통 본사 대표실에는 눈길을 끄는 글귀가 있었다.

‘코레일유통 돌파 6000억.’

칠판에 붓글씨로 거침없이 쓴 표어를 기자는 한참 쳐다봤다. 언론에선 종종 공기업의 이윤추구를 두고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담조로 붙인 표어인가 했더니 이날 만난 김영태 코레일유통 대표는 진지했다. 김 대표가 말하는 6000억원은 ‘대국민 서비스의 증명’이었다.

“매출이라는 건 그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공기업의 매출이란 건 기업이 고객이자 국민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시장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00억원 매출을 했다면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중요해요. 매출이 떨어지면 반대로 서비스를 깊고 넓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메트로경제가 김영태 코레일유통 대표를 만났다. 지난 4월 코레일유통 대표로 취임한 그는 대기업과 벤처기업,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키운 경영혁신과 변화관리 전문가로 꼽힌다.

이곳저곳 겪어본 김 대표지만 고객이 자 국민, 국민이자 고객을 맞게 된 후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코레일유통의 상품은 ‘이동의 경험’이다. 수도 서울부터 쇠락한 오지까지 전국을 잇는 기간산업인 철도를 둘러싸고 오가는 것이 코레일유통의 상품이다.

눈부시게 발전한 기술은 코레일유통의 적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 철도 이용자의 60%는 KTX를 이용하고, KTX의 정시율은 99.8%에 이른다. 고객은 편리해졌지만, 철도역에 머무는 시간은 짧아진 것이 코레일유통에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셈이다.

“KTX 정시율이 높다는 건 고객이 이동하는 시간 외에는 철도역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돼요. 실제로 출발 시간에 근접하게 와서 몇 분 머물지

기술발전에 KTX 정시율 99.8% 고객, 역에 머무는 5분 가져와야 쏘카·토스 등과 업무협약 맺어

공간 제약 넘어 새문화 확장 위해 매주 현장에서 직원들과 커피챗 폰 번호 공개하고 SNS로 ‘소통’

않고 떠나는 고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5분, 10분을 우리가 가져와야 해요. 그만큼 제대로 된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고객이 투자한 5분을 또다른 이동과 서비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하느냐가 우리 비즈니스의 숙제 아닐까요.”

철도역사라는 특수한 공간으로 인해 그동안 회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큰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이고, 또다른 하나

는 고속열차(KTX)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모빌리티 혁명도 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김 대표가 생각한 코레일유통의 무기는 바로 ‘연결’과 ‘확장’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업무에 대한 정의를 바꿨다. 유통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 그것이다.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 된 코레일유통은 지난 5월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철도역을 다른 교통수단까지 연계하는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다. 토스 등 ICT 기술 기업들과의 업무협약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됐다.

“수많은 나라가 도시 소멸을 이야기 하면서도 철도 역을 폐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 연결됐다’는 인식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지만 언제든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은 무겁고 중요하죠. 하나하나의 메시지들에 무게가 있어요. 대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대부분 해소

할 수 있어요.”

공간 제약을 넘어서고 새로운 문화로 확장하기 위해 김 대표는 회사 문화에 신경쓰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사에 자신을 최고청취책임자(CLO: Chief Listening Officer)라고 칭했다. 그간 솔한 경험에서 체득했다. 매주 전국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커피챗을 하고, 매월 ‘월간CLO’를 제목으로 편지를 쓴다.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뒤 수시로 문자메시지, SNS로 직접 소통한다. 번호를 공개한 후 생일을 축하해달라는 문자부터 남에게 터놓기 어려운 고민까지 직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코레일유통은 대한민국 철도 플랫폼의 공간 운영자입니다. 회사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감각, 미래 지향성, 국민과의 신뢰 속에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세가지는 다른 기업, 특히 민간에선 찾기 어려운 강점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 어쩌면 과거의 플랫폼에 스스로를 묶어 놓은 듯 합니다. 강점 속에 감춰진 약점입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7년만에 깜짝등장... 정유경 ‘아트 마케팅’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

‘신세계 × 프리즈’ VIP 파티 참석 아트슈머 확보일환... 아트페어 후원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이 7년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 6일 미술계 최대 행사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의 개막 날 열린 ‘신세계 × 프리즈’ 파티에 참석했다.

해당 ‘신세계 × 프리즈 VIP’ 파티는 신세계백화점이 분더샵 갤러리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로, 현장에는 약 500여 명의 VIP 인원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에는 특히 정유경 총괄사장, 손영식 신세계백화점 대표뿐만 아니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신세계 그룹의 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업계 이목을 끌었다. 그 외에도 방송인, 연예인, 패션브랜드 대표 등 셀럽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업계내 ‘은둔형 경영자’로 불리는 정 총괄 사장의 방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 총괄 사장은 2016년 신세계 대구점 개점 행사를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췄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정 총괄 사장이 이번 ‘신세계 × 프리즈 VIP 파티’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작품명 제프 쿤스, ‘세이크리드 하트(sacred heart)’

특징 신세계가 2011년 300억원을 들여 구매, 신세계백화점 본점 옥상 정원에 설치

아트페어(프리즈)에 후원사로 참여하는 건 신세계가 업계 최초다. 여기에 분더샵 청담이 프리즈 서울에 참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소비를 통해 문화적 만족감을 얻는 아트슈머들을 확보하기 위한 신세계의 전략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아트슈머들이 MZ 세대 중심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 미술품 거래액은 최초 1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미술 시장의 주요 구매자로 꼽히는 MZ 세대의 구입 경로는 갤러리, 아트페어로 조사

됐다. 신세계도 이같은 예술 열풍에 따라 아트마케팅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는 이번 프리즈의 후원을 계기로 미디어 파사드, NFT 등 아트에 기술을 접목한 마케팅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그간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활발히 벌인 만큼, 이번 프리즈 서울 행사를 위해 신세계 갤러리를 백화점 외부에 오픈했다”며 “이번 정유경 총괄 사장의 행사 방문은 첫 외부 갤러리 개관에 의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韓 주도 ‘뇌-컴퓨터 연결’ 국제표준 개발

인터페이스 데이터 형식 최종승인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핵심기술 요소인 데이터 형식에 대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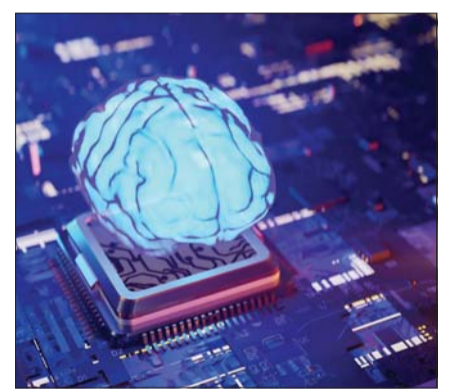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우리나라가 제안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안이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CI 국제표준화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BCI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로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에게 활동성을 보조하거나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등 의료, 헬스, 모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BCI 기술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이 없어 데이터 공유, 통합 및 분석, 활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 간 호환성 문제로 수집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신규 국제표준안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BCI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들 간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 공통 데이터, 필수 데이터 등의 범위를 정하고 통일된 데이터 형식을 제시한다.

이번에 제안된 표준안의 적용을 통해



/유토이미지

BCI 관련 산업화 촉진, 제품 개발비용 감소가 예상되고, 데이터 표준을 선점해 향후 관련 제품 개발과 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과 향후 추가로 제안되는 BCI 데이터 분야 표준안을 다루기 위한 작업반이 설립됐고, 우리나라가 작업반 의장을 맡을 예정으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전망이다.

진중욱 국표원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 산업은 인간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까지 확장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시작 단계인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제안과 작업반의 리더십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 ▶



우리가 그리는 2030부산엑스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2030부산엑스포를 통해
기후변화, 양극화와 같은
인류가 마주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SK도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尹대통령, 아세안·G20 순방 마무리

인니·인도와 경제협력 가속... 우크라이에 20억弗 지원 방침

인니, 전기차·이륜차 협력 예정
인도와 우주산업·방산분야서 발전
우크라이에 무상 개발 협력 등 도와
G20서 녹색기후기금 3억弗 공여
韓·日·中 정상회의 연내 개최 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가운데, 신흥 시장을 확충하고 공급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경제 외교'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20여 개국 정상들과 경제, 안보 협력 등을 놓고 양자 회담을 가졌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정상과 정상회의를 가지며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양국 간 산업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시켰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경제규모, 영토, 인구 1위 국가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5.31%의 경제성장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률을 달성했다.

양국은 올해 1월에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성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전기차 허브로 부상함에 따라, 인프라·인력·R&D·제도 등 4대 분야에서 전기차·전기이륜차 협력을 가속화할 예

정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IECC)에서 열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통신 등 디지털 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산업 분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는 인구에서 이미 중국을 앞질러 전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됐고 2030년엔 세계 경제 3위권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우주 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했는데, 신설되는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1972년에 설립돼 역사가 50년에 이르는 인도 우주청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을 나가기로 했으며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기후 위기 대응

윤 대통령은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 참석해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25년 이후)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밝

혔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전후에 치러질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에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하나의 지구'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를 공여하고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계획 등을 공개하면서 기후 변화 취약국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 논의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국 정상은 6개월 간 6번을 만나며 친선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중국의 리창 총리도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 후 열린 윤 대통령과 회담 중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연내 개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기시다 총리까지 호응하면서 2019년 12월 개최된 이후 삼국의 정상회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지지율 상승... "12일 檢 재소환 응해" 與 "막말 대잔치" vs 野 "이종섭 장관 탄핵"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차

호남 지역 지지율 18%p 올라
친명·비명계 갈등도 수면 아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2일차에 접어들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지지율이 지난 주 같은 여론조사보다 두자릿수 오르는 등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인한 민주당의 지지가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응답률 14.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혹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주 같은 조사보다 7%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이중 호남 지역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43%에서 61%로 18%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34%의 지지율로 나타나며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론조사 수치 이외에도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를 가리지 않고 이 대표의 단식 천막을 찾으면서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이날



단식투쟁 12일차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 누워 있다. /뉴시스

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10일) 이 대표를 찾아 건강을 염려하고 격려한 데 이어, 11일 오전엔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천막을 찾아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중진 의원들에게 "정권의 관심은 폭력적인 권력 행사 그 자체에 있는 것 같다"며 "권력이 추구해야 할 제일 핵심적인 과제인 민생,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단식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도 참석하지 못한 이 대표는 12일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 검찰의 부당한 추가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

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12일 출석으로 5번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재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번달 말에 있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돼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비회기임에도 국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해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표는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 측에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라고 촉구할 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표 명의 입장문 발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추진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야당을 중심으로 열린 도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발언에 대해 "막말 대잔치"라고 표현하며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의 외교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야당이 주도한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뺨속까지 왜놈'이라는 막말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집회에서) 똥똥 뭉쳐 정권 퇴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탄핵발언도 어김없이 나왔다"며 "야당의 모욕적 막말과 근거 없는 탄핵이라는 아무 말 대잔치를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행태는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줄어드는 참석자의 규모가 증명하듯이, 괴담과 선전·선동, 대통령에 대한 망언과 악담으로 가득 찬 집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당리당략적 목적으로 괴담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케케묵은 구태로 국

민을 속였던 광우병 괴담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 천막 앞에서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이 대표는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단식을 12일째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진실을 밝혀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며, 또 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선다. 제발 집권당답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 후 특검 도입을 시사한 이 대표는 "진실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모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2023 THE 아시아 대학평가
국내 14위, 아시아 140위



지·산·학 일체형 대학

지자체 산업체 대학

혁신인재 양성

‘글로벌대학30’ 예비선정...지역산업 대전환 견인
● 국가첨단 전략산업과 연계한 이차전지 전문교육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 | 2023. 9. 11.(월)~9. 15.(금)

입학상담문의 | 052) 259-2058~9

입학홈페이지 | <https://iphak.ulsan.ac.kr>

은행 불붙은 기업대출 확장경쟁... 건전성 과제

당국 가계대출 제동에 눈 돌려
5대은행 기업대출 8.6조 증가
월 증가폭 3조서 2배 이상 확대
과도한 경쟁에 건전성 악화 우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고삐를 당기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일부에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47조 4895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5974억원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잔액 618조 849억원)이 5조 4025억원, 대기업 대출(잔액 129조 4044억원)이 3조 1949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올해에만 43조 8146억원



늘어났고, 월 증가폭도 연초 3조원대에서 7조~8조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전체 원화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 전년 말(49.6%) 대비로는 2.0%p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이 급증한 배경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 812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 2208억원)과 비교해 한 달 만

에 1조 5912억원 늘었고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8월 증가폭(1조 5912억원)은 2021년 11월(2조 3622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40년 만기로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책상품 금리 역시 올렸고, 한도를 축소하면서 사실상 가계대출규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융당국 제재를 피해 기업금융을 통한 수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우량 자산 증대를 통한 1등 은행'을 목표로 대기업 대출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우리은행 역시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해 우리은행이 4년 후 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리딩뱅크 경쟁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하반기 기업대

출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실적에서도 기업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은행을 찾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기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아 걱정이 없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교적 우량한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을 늘릴 계획으로 심사를 강화해 부실과 연체를 걱정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며 "대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이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퇴직연금 ETF 상품 출시. /삼성생명

삼성생명 펀드·주식 장점 담은 퇴직연금 상품 선택

삼성생명이 가입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한 퇴직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모아 투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펀드투자자와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담았다는 설명이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이용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미래, KB, 한국투자 등 자산운용사의 112개 상장지수펀드 상품을 준비했다. ▲이차전지 ▲전기차 ▲헬스케어 등의 항목은 별도로 마련했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 미래, KB, 한투 4개사의 상품가입시 선착순 400명에게 최대 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캐롯손해보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효일 대표이사 동참

캐롯손해보험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캐롯손해보험은 문효일 대표이사가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손동작이 담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한다.

그간 화하진 환경부 장관을 필두로 지금까지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 배우박은빈 등이 참여했다. 문효일 대표는 앞서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신한라이프 전 임직원 자발적 참여 빛나는 한걸음 캠페인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이 취약계층과의 상생에 나섰다.

◆ 취약계층 장애인 위한 휠체어 기부

신한라이프는 '빛나는 한걸음 캠페인 II'를 내달 10월 13일까지 5주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기간 내 5000만보를 달성할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50대의 휠체어를 기부한다. 이어 서울시 양천구 관내 약 400명 부지에 '빛나는 숲 3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산 기자

손해율 안정에 흑자 행진 車보험료 인하 기대감 쑥

상반기 車 보험손익 5559억 집계
손해율도 전년동기비 0.9%p ↓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올 상반기 자동차 보험의 손익이 큰 폭의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데다 손해율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손익은 555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06억원 감소했지만 지난 2021년 이후 큰 폭의 흑자 기조가 지속됐다.

손해율은 78.0%로 전년 동기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엔데믹 이후 이동량이 늘면서 손해율이 소폭 높아졌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는 손해율이 각각 87.7%, 84.5%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평년에 비해 특히 낮았다"며 "이를 감안하면서 올해 상반기 실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율은 16.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모두 고려한 합산비율은 94.2%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 6385억원으로 가입대수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54억원 증가했다.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과점 구조는 심화됐다.

대형사인 삼성·현대·KB·DB의 시장 점유율이 85.2%에 달했으며, 대형사를 제외한 8개사 중 온라인전업사인 캐롯만 유일하게 점유율이 높아졌다.

채널별 판매비중은 대면 50.1%로 전년 동기 대비 2.3%p 하락한 반면 사이버마케팅(CM)은 33.5%로 2.3%p 상승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손해율이 상반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영업실적을 기초로 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t@

Sh수협銀, 프라이빗 बैं킹 서비스 본격화

'Sh수퍼골드클럽' 운영 시작

Sh수협은행이 프라이빗 बैं킹(PB) 서비스를 시작했다.

Sh수협은행은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인 'Sh수퍼골드클럽' 운영에 나섰다. 11일 밝혔다.

서비스 시작 기념 우수고객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서울지역 우수고객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Sh수퍼골드클럽 서비스 시행을 위해 2명의 PB지점장을 선발했다. 서울 양재와 압구정 두 곳에 전담지점을 마련했다. 은행내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해 '주니어PB'로 육성한다. 'VVIP'고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Sh수퍼골드클럽' 행사에서 포부 및 다짐을 발표하고 있다.

객을 위한 전담 고객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강 행장은 "이제 본격적인 PB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고객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상반기 자영업 중심 관계형 금융 15.3조 ↑

중소법인 대출 10.5조, 68.6% 차지
신한·기업은행, 비중·공급액 우수

관계형금융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관계형금융 잔액은 15조 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3% 늘었다. 90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2.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차주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10조 5000억원으로 68.6%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4조 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000억원이나 늘면서 관계형금융의 성장세를 주도했다.

평균금리는 4.91%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0.62%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중기대출 금리 평균인 5.28%보다는 낮았다.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26%p 상승한 0.59%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위주로 자금이 공급됐다. 도·소매업이 32.1%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25.1%)과 서비스업(18.2%)이 그 뒤를 이었다.

관계형금융 우수 은행은 대형 그룹에서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위, 2위를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누적 공급금액과 업무협약 체결건수, 초기기업 대출비중, 신용대출 비중 등이 우수했다.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비중 등은 다소 저조했지만 누적 공급금액 및 공급 증가율, 컨설팅 실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형 그룹에서는 대구은행이 1위, 광주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형금융의 공급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우리銀, '핀다'에 개인 신용대출상품 입점

핀다와 제휴, 비대면 채널·상품 확대

우리은행은 대출비교플랫폼 '핀다'에 우리은행 대표 개인 신용대출상품이 입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핀다 대출비교서비스'에 입점하는 상품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새희망홀씨 II', '우리 청년도약대출(새희망홀씨 II)' 총 3종이며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 대상 폭을 넓혔다.

'우리 청년도약대출(새희망홀씨 II)'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재직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연 5.0%의 확정금리로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핀다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도 입점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입점하는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은 6개월 이상 재직,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출시한 대환대출 전용 신상품이다. /이승용 기자

애플·아너 등 신제품 러시... 프리미엄 시장 '춘추전국'

가을 스마트폰 대전 임박

애플 아이폰 15시리즈 출시 임박
구글 내달 '픽셀8 시리즈' 공개 전망
아너 폴더블폰 '아너 매직V2' 선봬

삼성전자가 폴더블 신제품으로 '스마트폰 대전'의 포문을 연 가운데 애플·구글·아너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시장 점유율 사냥에 나선다.

11일 모바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13일(한국시간) 오전 2시에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한다. 전 시리즈에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적용하고, 유럽 연합(EU)의 USB-C 탑재 의무화 법안 때문에 USB-C형 충전 단자를 채택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아이폰15 시리즈부터는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라인을 출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울트라 모델은 8GB 램과 최대 2TB의 메모리를 가지고 현재 최고사양인 프로 맥스 라인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출고가는 전작 대비 100달러(13만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2022년 출시한 아이폰14 프로는 미

애플의 아이폰14



/애플

국 판매가 기준 999달러(134만원), 프로 맥스는 1099달러(147만원)였던 것에 비하면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 셈이다.

애플의 아이폰 외에도 올해 하반기는 신제품이 다수 출시돼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구글은 오는 10월 4일 미국 뉴욕에서 '구글 픽셀8 시리즈'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IT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6.31인치에서 출시에 앞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픽셀8의 화면은 6.31인치에서 6.17인치, 픽셀8 프로의 화면은 6.71인치에서 6.7인치로 전작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 주사율 부분은 90Hz에서 120Hz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의 센서가 더 커지고,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의 센서 성능도 더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픽셀8시리즈는 AP(앱 프로세서)로 구글 텐서 G3 칩이 탑재될 전망이다. 출시 전작들의 발매일로 미뤄볼 때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 이후인 10월 11일이 유력하나 국내 정식 출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신형 스마트폰 출시 대열에 합류했다. 중국의 아너는 최근 신상 폴더블폰 '매직 V2'의 글로벌 출시를 발표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1~5일 동안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Honor)'는 신규 폴더블폰을 공개했다. 조지 자오



아너의 '매직 V2'

/아너

아너 CEO는 1일 IFA 2023 기조연설에서 "삼성 갤럭시(Z폴드5)의 두께는 13.4mm다. 아너의 (폴더블폰) 매직V2보다 거의 40% 더 두껍다"고 말하며 삼성전자와 맞대결을 선언했다.

삼성전자의 Z폴드5에 적용된 '플렉스 힌지'와 마찬가지로 폰을 접으면 양쪽 화면 사이 유격이 거의 없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로 갤럭시 Z폴드5(4400mAh)나 아이폰14프로맥스(4323mAh)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아너 매직 V2 가격은 1250 달러(약 165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5 가격(256GB)이 1799 달러(약 23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7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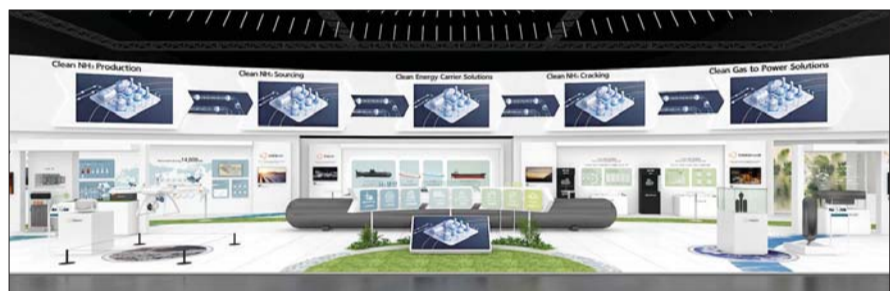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은 제각각이지만 '가격'과 '성능' 측면에서 가격은 중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대결 구도를 이루고, 성능은 애플이 삼성전자와 호각을 다룰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갤럭시 Z폴드5·Z폴드5 등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이 1000만대를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증가도 주목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침체된 글로벌 경기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전체의 파이를 두고 업체들의 경쟁 또한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올해 4~6월 출하량 5390만대로 1위(19.8%)에 올랐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출하량은 12.4% 감소한 수치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궤를 함께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에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이들은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15의 인기와 비핵심 아이폰 시장의 성장이 애플의 출하량이 삼성을 넘어설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화그룹의 'H2 MEET' 부스 조감도.

한화그룹, 'H2 MEET' 참가 청정수소 밸류체인 선보인다

수전해, 무탄소 발전 등 소개
"글로벌 탄소중립 기여할 것"

한화그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수소 전시회 'H2 MEET'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선 수소 정책을 위한 교류와 네트워킹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화는 재생에너지와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운송·활용해 수소발전소와 수소연료전지까지 활용하는 통합 밸류체인을 선보인다.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해 ㉠한화, 한화에너지, 한화솔루션, 한화임팩트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물 분해해 수소를 얻는 수전해 기술과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소개한다. 한화솔루션은 생산된 수소를 안정적으로 저장·운송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고압 탱크(트레일러 운송용, 수송차, 드론 및 항공우주용 등)도 전시한다. 한화솔루션의 37피

트급(11.1m) 고압탱크는 세계 최대 수준의 저장 용량과 우수한 내압성을 가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도심항공교통(UAM), 광역교통망(RAM)에 적용할 수 있는 100킬로와트(kW)급 경량형 수소연료전지를 전시한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암모니아운반선과 수소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한 3000톤급 잠수함 모형도 전시한다.

한화파워시스템은 100% 수소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발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재 무탄소 발전 직전 단계로 LNG와 수소를 혼합해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혼소 발전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 등 기존에 진행하던 재생에너지 사업과 더불어 청정 수소 사업으로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다"며 "특히 수소혼소 발전기술을 적용한 수소발전소를 2027년 대안에서 상업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하반기 채용

현대차그룹, 연구개발 분야 등 신입 선발

현대자동차그룹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빠르게 준비하기 위해 인재를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14일까지 9월 신입사원 상시 채용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채용은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총 6개 분야 26개 직무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대졸 신입 채용의 경우 '예측 가능한 상시 채용' 원칙에 따라 매 분기 마지막 달 1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로 모집한다. /양성운 기자

기아는 25일까지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기아는 상반기에는 매달 직무별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부문별 일괄 채용을 실시하는 방식을 지난해 도입했다.

올 하반기 채용 부문은 ▲글로벌 사업 ▲국내사업 ▲오토랜드화성 ▲오토랜드광명 ▲오토랜드광주 ▲파워트레인(PT)사업 ▲제조솔루션(생산기술) ▲생산기획 ▲구매 ▲품질 ▲고객경험(브랜드·마케팅·CX) ▲재경 ▲안전환경 등 총 13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달 17일까지 물류, 해운, 유통, 신사업, KD, IT, 경영지원 등 전 사업 영역에서 하반기 신입 사원을 모집한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자

'비스포크 웨딩 펀딩' 캠페인

삼성전자가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스포크 웨딩 펀딩(BESPOKE Wedding FUNding)'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예비 부부에게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청첩장을 지원한다.

'비스포크 웨딩 펀딩'은 실용적이면서 각자 개성을 담고자 하는 최근 신혼부부 트렌드를 담았다. 예비 부부는 제공하는 비스포크 웨딩 펀딩 모바일 청첩장에 꼭 갖고 싶은 삼성 신혼가전 위시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다.

청첩장을 받은 지인들은 위시리스트에 등록된 제품을 선택해 원하는 액수만큼 펀딩에 참여해 신혼 가전 장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LG전자

'마이크로 LED' 북미 출시

LG전자가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열린 영상가전 전시회 'CE DIA 2023'에서 공개한 마이크로 LED 신제품을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한다.

LG전자는 마이크로 LED 라인업을 지속 확대한 데 이어, 프리미엄 홈 시네마 고객을 위한 제품도 기존 136형 모델을 포함해 2종으로 늘렸다. 신규 출시 제품은 118형(대각선 길이 약 3미터) 크기의 화면에 4K(3840×2160) 해상도를 지원한다. 독자 디스플레이 표면 처리 기술로 어떤 각도에서도 뚜렷한 색을 보여주고, 표면 블랙 코팅으로 블랙 색상을 더 깊고 풍부하게 표현한다. /김서현 기자

효성그룹, 200여명 규모 공채지원 접수

효성그룹이 하반기에도 공개채용에 나서며 일자리 확대에 힘을 더한다.

효성은 11일부터 22일까지 200여명 규모 하반기 공채 지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성은 지난해보다 올해 공채 규모를 2배로 늘리게 됐다. 종전까지는 1년에 한번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같은 규모로 채용을 결정했다.

참가 계열사는 지주사를 비롯해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굿스프링스 등 6개다.

모집분야는 ▲영업(해외, 국내, 기술, 무역, 물류, 마케팅) ▲관리(구매, 재무, ESG, 신사업, 인사/총무, 홍보) ▲생산기술(섬유, 화학, 중공업) ▲R&D(섬유, 화학, 중공업, 펄프) ▲IT(시스템 개발, 영업, CS) ▲건설 시공 등 6개다. /김재용 기자 juk@

유럽서 인정한 SUV... 실내·안정감·성능·경제성 다 갖춰



르노코리아 'XM3 하이브리드'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르노코리아의 목표입니다.”

르노코리아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SUV) XM3에 대해 김민영 르노디자인센터서울 수석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했다.

특히 XM3의 경쟁력은 간간하기로 유명한 유럽 시장에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성능은 검증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XM3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고 연비가 좋은 모델'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최근 XM3의 장거리 시승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매력을 확인했다. 시승은 XM3의 하이브리드 모델 'XM3 E-TECH 하이브리드'로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를 출발해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광주비엔날레를 다녀오는 약 70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복잡한 도심과 고속도로, 국도 등을 다양하게 주행했다.

XM3 하이브리드는 소형으로 분류



르노코리아 XM3 E-TECH 하이브리드 주행 모습(왼쪽)과 실내 모습.



‘합리적 가격에 만족할 수 있는 차’
간간한 유럽서 흥행 돌풍 이어가
공간·주행, 중형 SUV 못지 않아
F1경주차 하이브리드 노하우 접목
전 트림 주행안전·편의 기본 장착

되지만 실내 공간과 주행 안정감 등은 중형 SUV 못지 않았다. 소형 SUV 특유의 가벼움이나 불규칙 노면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없었다.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높여도 단단한 하체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했다.

XM3 하이브리드는 1.6MPi 기술린

엔진과 구동모터, 시동모터 등 두 개의 전기모터를 통해 합산 최고 출력 145마력, 최대 토크 15.1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구동 전기모터는 36kW, 발전 기능을 겸하는 고전압 시동모터는 15kW 출력을 낸다.

XM3 하이브리드 구동계는 르노그룹 F1 경주차에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기술 노하우를 접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제 주행에서 XM3 하이브리드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엔진 개입 없이 전기 모터만으로 부드럽게 출발했다. 시속 50km 이하 도심 저속 주행에서는 특히 변속 충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부드럽게 가속해 전기차를 운전하는 듯했다. 전기모터 특유의

높은 토크로 초반 가속이 경쾌하고, 실내도 전기차처럼 조용했다. ‘왼 페달 드라이빙(가속 페달 하나로 가감속을 모두 수행하는 운전방식)’이 가능하다는 점도 전기차의 모습을 빼닮았다.

XM3 하이브리드의 차체 크기는 길이 4570mm, 너비 1820mm, 높이 1570mm, 휠베이스 2720mm다. 수치상 경쟁 모델인 코나(2630mm)와 트레일블레이저(2700mm) 보다 길다. 덕분에 성인 4명이 탑승해도 2열 헤드룸과 레그룸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운전자 중심의 공조장치는 배려심이 돋보였다. 과거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했던 주요 공조장치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분리해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필요한 기능

을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적재공간이다. XM3는 513L의 공간을 제공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487L로 26L 감소한다. 만약 패밀리 SUV를 고민한다면 XM3를 추천한다.

XM3 하이브리드는 전 트림에 ▲오토 홀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 ▲차간거리경보시스템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 ▲차선이탈방지보조시스템(LKA) ▲오토매틱하이빔(AHL) 등의 주행 안전 및 편의 기능이 기본 장착했다. 인스파이어 트림의 경우 ▲고속화 도로 및 정체 구간 주행보조(HTA) ▲이지 커넥트 9.3인치 내비게이션 등이 추가로 기본 제공되며, INSPIRE(e-시프터) 트림에는 전자식 변속기 e-시프터(e-Shifter)가 더해져 기존 기계식 변속기보다 향상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한다.

XM3 하이브리드의 RE 트림은 3195만원, 인스파이어는 3452만원, 인스파이어 이테크 디자인 패키지는 3517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T, 中企 AWS 클라우드 운영비 최대 40% 낮춘다

ARM 기반 서버로 이전 지원
중기·스타트업에 우선 제공
올해 말까지 한시적 무료 개방

SK텔레콤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기반 클라우드 운영비용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SKT가 이번에 선보이는 솔루션은 AWS 기반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솔루션으로,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높은 인텔·AMD 기반 서버에서 저전력·고효율 CPU인 암(ARM) 기반 서버로의 이전을 지원해 운용 비용을 20~40% 절감할 수 있다.

국내 클라우드 서버 시장은 현재 대부분이 인텔이나 AMD CPU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

아마존이 저전력에 성능까지 뛰어난 ARM 기반 자체 개발 CPU인 그레비틴 서버로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부 기업이 전환을 추진했

(X86기반 AWS 서버와 ARM기반 AWS 서버(Graviton) 비교)



으나, 단순히 서버만 변경할 경우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실제 전환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다.

SKT는 2022년부터 자사와 ICT 패밀리의 AWS 비용 절감을 위해 그레비틴 기반 서버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국내 최대 수준인 전체 클라우드 사용량의 약 17% 이상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그레비틴 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을 다수 확보해 전환 솔루션

을 직접 개발하게 됐으며 지난달 AWS로부터 국내 유일의 공식 파트너(SDP 인증)로 인정받았다. 현재 AWS가 공식 인증한 전환 솔루션 파트너 기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KT를 포함해 6개사에 불과하다.

고객사가 인텔이나 AMD 환경에서 개발된 앱을 그레비틴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가능 여부 진단 ▲전환 컨설팅 ▲실제 전환 실행 과정이 필요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DIA-車튜닝협회와 맞손 정보·기술교류 통해 애프터마켓 시장 진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가 자동차 애프터마켓까지 노린다.

KDIA는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오토살롱위크2023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KDIA는 지난 1월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를 발족하고 자동차 전장 시장 공략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애프터마켓 생태계 확대에도 힘을 보태게 됐다.

KDIA는 자동차에 디스플레이 면적이 크게 확대되면서 구형 차량 소유자들도 이를 누리기 위해 애프터마켓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OLED가 프리미엄 및 개성을 추구하는 튜닝 수요자들에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애프터마켓 시장 규모는 전세계 100조원 이상,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1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은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으로 성장이 제한됐지만,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와 기준 합리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도약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DIA는 애프터마켓과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튜닝산업협회와 협약을 통해 ▲정보·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지원 ▲기술 및 비즈니스 교류 증대를 위한 전시·포럼 개최 상호 협력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 KDIA는 튜닝산업협회와 함께 OLED를 적용한 프리미엄 콘셉트카를 제작하는 등 차량용 OLED 튜닝 시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포스코홀딩스-서울대, 벤처·산학연 협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벤처 지원 및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

포스코홀딩스와 서울대는 1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산학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포스코그룹은 그

룹의 벤처플랫폼을 활용, 서울대의 우수 연구성과를 창업 및 벤처펀드 투자로 연계해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 양 측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도 힘을 합친다. 포스코그룹은 핵심사업 전반에 걸쳐 서울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동참하는 개방형 협업 연구과제를 추진

한다.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제도를 신설, 포스코그룹 채용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최정우 회장은 “서울대의 우수한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상용화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기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포스코그룹은 친환경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나아가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을 영입하고 R&D 투자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왼쪽)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산학연 협력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로봇株 고공행진에 두산로보틱스 체급 ‘따따블’ 기대감

정부·대기업 로봇사업 집중에 반등 레인보우로보틱스 올 주가 516%↑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매출액 1위 월등한 실적에 공모가 4배 가능성

하반기 주도주로 거론되고 있는 로봇 테마주의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주가 반등이 더욱 재촉되는 모양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조 단위 대어 두산로보틱스도 글로벌 경쟁력과 더불어 로봇 강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이달에만 40.2% 올랐다. 연초부터 이날까지는 516.8%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로봇을 국가 첨단산업 육성분야에 포함하는 등 호재가 발생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가 경중 뛰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유사 증자에 참여해 지분 14.99%

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 이날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무려 29.9% 급등했으며, 또 다른 로봇주인 뉴로메카도 함께 18.8% 가량 뛰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로보틱스의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국내 협동로봇 시장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4위를 달성했다.

두산로보틱스가 제시한 공모 희망가액은 2만1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상단기준 시가총액은 1조6853억원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급성장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의 체급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국내 1위 협동로봇 기업일 뿐더러 지난해 매출을 비교했을 때, 레인보우로보틱스보다 월등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두산로보틱스의 지난해 매출은 450억원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매출액(136억원)과 약 3배 차이가 난다.

서재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의 2018년부터 2022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46.1%를 기록했다”며 “동기간 협동로봇 전체 시장 규모가

연평균 15.9% 성장한 것을 고려했을 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국내 로봇 경쟁사들의 주가 강세로 인해 상승한 밸류에이션과 시장 기대감을 고려하면 두산로보틱스의 상대적인 평가가치(밸류에이션) 매력에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연이다.

또한, 두산로보틱스의 제품 라인업은 총 13개로, 글로벌 로봇 1~3위 기업인 유니버설 로봇(Universal Robots)이 5개, 파나시(Fanuc) 7개, 테크맨 로봇(Techman Robot) 10개인 것과 대비해 제품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가 글로벌 최상위 3위 협동로봇 솔루션 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쟁사 대비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유니콘특례 요건으로 상장을 추진하지만,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노동력 공급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되는 협동로봇 수요 증가를 감안한다면 이익 달성 시점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양의 부산 기장군 장안읍 2차전지 생산공장 조감도.

/금양

금양, 8000억 투자해 2차전지 공장 ‘첫삽’

부산 기장군서 건립 기공식 열어 3억셀 규모 생산시설 갖출 예정

코스피 상장사 금양이 부산 기장군에 대규모 2차전지 제조 공장을 짓는다. 오는 2026년까지 총 8000억원을 투자해 4만평 규모에 3억셀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갖추면 명실공히 2차전지 제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금양은 11일 오전 기장군 장안읍 오리 소재 동부산 이-파크(E-PARK) 일 반산업단지에서 ‘2차전지 생산공장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공식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류광지(썬금양 회장,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금양은 연면적 약 4만 평 2층 건물에 3억셀 규모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내년까지 건립하고 2025년부터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부산시와 금양은 2차전지 생산시설 건립 등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장이 가동되면 10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양은 기존 발포제 사업과 연관된 정밀화학 사업에 진출하고자 지난 2019년 부산 사상구 본사에 리튬 가공 공장을 건설하면서 2차전지 사업에 첫발을 내딛었고 2022년 4월 배터리 셀

개발을 완료해 전기적 특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올해 3월 본사에 700만셀 2차전지 공장 준공 및 인허가를 완료해 상업용 생산에 들어갔다. 5월에는 본사에 에너지기술센터 센터를 준공했고 오는 12월에는 1200평 규모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95 연구개발(R&D)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아울러 콩고와 몽골에서 진행 중인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2차전지의 주요 원재료인 리튬의 채굴 및 가공부터 이차전지 생산과 리사이클링에 이르는 ‘2차전지 밸류체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2차전지 핵심사업 부분인 양극재 시장의 게임체인저를 목표로 하이니켈계 단결정 양산 기술을 보유한 에스엠랩의 지분을 최근 인수한 바 있다.

류광지 금양 회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30% 이상은 기장군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주민분들과 상시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며 “금양은 전기차가 주도할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가는 원통형 배터리시장의 리더가 되고, 부산에 대한 민국 배터리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증권사, 신사업 위해 전문인력 확충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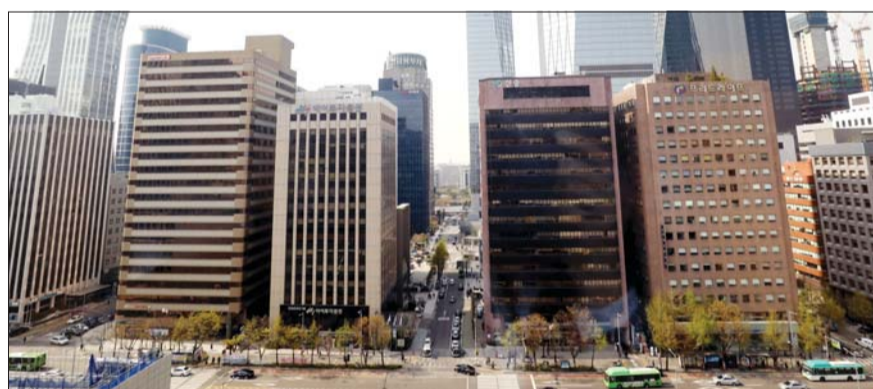
한투·삼성증권 하반기 공개채용 나서 유안타·토스·카카오 경력 상시 모집

주요 증권사들이 신사업을 위해 토 큰증권(STO) 등 정보기술(IT) 부문 인재와 경력자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최근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섰다. 유안타·토스·카카오페이증권 등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경력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프라이빗 뱅커(PB) 및 금융영업마케팅, 본사 영업, 운용, 리서치, 본사 관리, 디지털, 플랫폼 등에서 정규직 신입 사원을 채용키로 하고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직무역량 평가를 거친 후 면접과 채용 검진, 최종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내달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뉴스

장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신입사원 일반 공채를 위한 대학 채용설명회에 나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오는 14일과 18일 각각 고려대, 서울대에서 열리는 채용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선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도 12일과 21일 연세대와 한양대에서 열리는 채용설명회에서 강연한다.

삼성증권은 이달 18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접수를 진행한다. 삼성

증권의 채용 분야는 리테일, IB, 리서치, 세일즈앤트레이딩(S&T), 홀세일, IT, 경영지원 등이다.

한화투자증권도 이달 8일까지 본사 영업과 지점영업을 구분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접수를 진행했다.

증권 업황 악화, 신사업 등으로 리테일과 IT 부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증권사들은 신입 채용 외에도 상시 모집을 통해 두 부문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가을 이사철 앞두고 수도권 전세값 상승

0.02% 올라... 시장 불안요인 돼

서울 중구, 강남구, 광진구, 서대문구, 송파구 등에서 전월 대비 전세값이 뛰었다. 중구 신당동, 광진구 구의동, 광장동, 서대문구 흥제동 등은 85㎡이하의 중소형아파트가 전세가 상승을 주도했다.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및 송파구 가락동, 잠실동 등은 리모델링 추진과 정비사업 유망단지 가격이 반등했다.

경기는 의왕, 용인, 안산시 등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서구 청라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처럼 수도권 전체 전세값이 반등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11일 부동산R114가 아파트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8월 수도권 전세가격은 0.02% 올라 2022년 5월(0.03%)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7월

보합(0.00%)을 기록했던 서울은 전월 대비 0.07% 올랐고, 경기지역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 0.01%를 기록했다. 인천은 2021년 12월(0.19%) 이후 20개월만에 상승 전환됐다.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등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전세대출 금리 인화와 아파트 매매가 급등이 꼽힌다. 연초 5~6%대였던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3~4%대로 내려왔다. 이에 따라 월세에서 전세로 회귀하는 수요가 늘었고, 낮은 가격에 갈아타기 수요가 맞물렸다. /이규성 기자 peace@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국건위·국토부·서울시 맞손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11일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선정, 앞으로 공동 계획 수립, 선도사업 추진, 공동홍보 및 비전발표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보훈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상징공간이란 도시의 주요 역사 문화자산을 활용, 국가적 정체성을 표출하고 새로운 시대 가치(예쇄→개방·소통·생태·인간중심 등)를 담아내는

장소이자 미래도시비전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시민소통공간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조성, 전체 서울시민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국건위는 기획연구와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건축·도시적 관점(H/W)과 문화적 가치(S/W)를 접목한 통합적인 공간구상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영걸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국건위가 콘트론타워로서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가능성 있는 한계기업, 부실 심화 전 지원절차 마련해야”

중소 구조개선 촉진 토론회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법원의 회생절차 외에 제3자가 나서서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재무환경이 전반적으로 나빠져 경영 정상화, 기업 회생, 사업전환, 폐업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 활용률이 매우 낮고, 법정관리로도 불리는 회생절차는 법원이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낙인효과’ 등 제도적 한계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같은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채무자(기업)가 배제된채 금융기관(채권자)이 주도한다는 면에서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절차 참여가 보장되고 법적 강제력으로 공정성, 중립성이 보장되지만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 기존 거래관계 단절 등 기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 6번째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서강대 임재운 명예교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김도성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팬데믹에 중소기업 재무환경 전반 악화 경영정상화·회생 등 위한 제도 절실

“日 제3자기관 중소기업활성화협 처럼 사적 구조조정제도 추가적 필요”

“채무·채권자 입장 공정하게 고려 정부 주도의 제3자 필요한 시점”

업 회생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회’를 예로 들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제3자기관이 주도하는 여러 사적 정리절차 중 하나인 중소기업활성화협회의는 중립적 입장에서 채무조정과 중소기업 재정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면서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기업의 부채를 탕감

하기위해 입은 손실에 대해선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관련 협의회 참여기업은 기관 대출을 통해 우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회생이 예상되는 기업은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장비, 자금, 운전자금 등도 더욱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조발제 후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소기업정책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임재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우선 10월에 끝나는 기촉법의 일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금융포럼 위원장인 덕성여대 김이배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천재지변보다 심각한 영향을 준 만큼 더욱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한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유동성

은 부족해도 영업활동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은 선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이 심화되기 전 선제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이 아이디어로 제시한 사적 구조조정제도 추가 마련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다.

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활성화협회를 규정하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중소기업과 함께 뛰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동반자며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도 모두 아우른다. 또 정상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망한 다음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 악화된 경영상태가 과잉채무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돕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법에 다 담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이와 관련한 아무런 기관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인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가 있지만 새로운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3자가 주도하는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부장관사 출신의 전대규 변호사는 “기촉법 일몰 연장도, 제3자 방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법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서 “IMF 등을 거치면서 대기업은 대부분 구조조정을 끝냈다. 이전 중소기업만 남았다. 시간이 걸리는 법제화보다는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합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oul.co.kr

이명박, 中企 CEO에 경제활력 희망 전한다

〈前 대통령〉

제주서 中企 리더스포럼 기조강연 업종별·지역별 대표 400여명 참가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인 2010년 9월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하나로 동반성장위원회

회를 구성해 운영기로 결정하고 그해 12월 정식 출범시킨 바 있다.

당시 뜻을 올린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논의해 민간 부문의 협력을 도출하는 민간 위원회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초대 위원장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맡았었다.

이와 함께 올해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이란 주제로 특별강연도 한다.

이외에 나흘간의 포럼에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한 시장경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김광석 한양대 교수의 ‘2024년 경제 전망과 중소기업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함께 ▲김영옥 배우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김정은 문화심리학자 ▲신의진 연세세브란스병원 교수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이번 포럼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과 더불어 지역 수산물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롯데백화점 확장·리뉴얼 오픈

매장 2배 확장... 체험침대 수 늘려

시몬스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8층에 ‘시몬스 롯데백화점 본점’을 새단장하고 확장해 문을 열었다.

11일 시몬스에 따르면 이번 리뉴얼을 통해 매장 규모는 기존 대비 2배 가량 넓어졌고, 체험 가능한 침대 수도 대폭 늘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매장에는 우드톤의 인테리어를 적용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고급 침대 수요에 발맞춰 전국 롯데백화점 중 최초로 시몬스 침대의 최상위 라인인 ‘뷰티레스트블랙(Beautyrest BLA



롯데백화점 본점에 들어선 시몬스 매장 전경.

CK)’ 존을 별도로 마련했다. 여기서는 뷰티레스트 블랙의 최고 모델인 ‘켈리(Kelly)’를 비롯해 ‘데보라(Deborah)’, ‘루실(Lucile)’, ‘로렌(Loren)’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휴롬오잇, 배도라지 과일청 스틱 출시

모과청·푸룬청·매실청 3종 선택

휴롬의 휴롬에프엔비가 새로운 식품 브랜드 ‘휴롬오잇(HUROM Oit)’을 통해 배도라지 과일청 스틱 3종을 출시했다.

11일 휴롬에 따르면 휴롬에프엔비 휴롬오잇은 기존 영유아 대상의 ‘휴롬키즈’ 브랜드에서 확장해 전 연령대를 대

상으로 채소, 과일의 영양을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건강하고 트렌디한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다.

배도라지 과일청은 배도라지 모과청, 배도라지 푸룬청, 배도라지 매실청 3종으로, 국산 도라지 추출액 75%, 나주 배 12% 이상을 함유했다. 설탕이나 감미료 등 첨가물 없이 국산 사양별골

로 건강한 단맛을 내고 한 포당 8kcal로 기존 제품 대비 칼로리 부담을 확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틱 형태여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한국기능연구식품원의 테스트 결과 면역력 강화 및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주는 조사포닌 성분이 스틱 한 포에 11.6mg 함유돼 있어 호흡기 건강은 물론, 감기와 변비 예방, 위장기능 강화 등 각 과일별 효능을 더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中企 추석 자금난 해소 70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석 명절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9~10월에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신청 절차와 비대면 상담, 전자약정 등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9월 정책자금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과 지방은 11~12일, 인천·경기지역은 13~14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추석 전후로 유동성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현장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중앙부처·지자체 추진체제로 전환

산업부 관계부처 전담반 회의

지방시대·과기정통부 등 참여
지자체, 추가 인센티브 지원 건의
전력수전예정통지 비수도권 45% ↑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부처가 협조해 추진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관계부처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과기정통부, 국토부와 더불어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인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이 참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4일 해남 솔라시도CC 내 홍보관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조성 투자협약식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회의에서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진행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프로젝트별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도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지

역 입지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통신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했

다. 전라남도는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사업을, 경상북도는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 사업, 강원도는 수열 연계형 K클라우드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날 해당 프로젝트 현

황을 공유했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은 초기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관련 한전에 접수된 전력수전예정통지 중 비수도권 비중이 올해 6월 기준 45%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경북 포항, 전남 장성, 해남군 등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사례가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정책의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보다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두산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공정위, 시정명령·벌점 2점 부과
22건 하자보수공사 위탁 위해 체결
미보증 극히 일부... 과징금 부과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3년간 벌점 5점 누적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산건설은 2020년 4월3일~2022년 4월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체

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위탁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해양디지털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협력

해수부, 아·태 지역 국제콘퍼런스
유럽·북미지역 전문가들도 참석

해양수산부가 11일 ‘제7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콘퍼런스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해 유럽 및 북미지역 전문가들도 모인다.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와 덴마크, 싱가포르, 미국 등 유럽 및 아태지역 20개국 정부기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계 해양 디지털 시장의 성장 △새로운 해양디지털 서비스 발전 방향 △국제 탄소규제 전망과 해양 디지털의 역할 △해양 미래를 바꿀 기술개발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양디지털 서비스·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수요가 있는 해외기업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 및 수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선박의 탄소 저감 해결책을 제공하는 HD현대글로벌서비스(주)와 싱가포르 해운선사 간, 그리고 해양디지털 장비 제조 기업인 ㈜지씨와 글로벌 해양 정보통신기업인 노르웨이 콩스버그 노르콘트롤스 간 수출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2일 참석해 회의를 낭독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동남아 3개국 쌀 2000톤 공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애프터)’를 통해 쌀 2000톤을 동남아 3개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G7 정상회담과 이달 6일 아세안+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연간 공여물량을 기존 1000톤에서 2배로 확대한 것이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는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 간 식량부족,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 각 회원국들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저장·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이다. 이번에는 필리핀 750톤, 미얀마 750톤, 라오스 500톤 등이 공여된다.

또 지난 5월 태풍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서 2500톤의 긴급 식량지원을 애프터를 통해 요청함에 따라 애프터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요청물량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20만명이 약 4.2일간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다.

/차상근 기자 skc8472@

폴리텍, ‘디지털·저탄소’ 인력양성 초점

관련 학과 총 10개 신설

한국폴리텍대학이 직업훈련의 초점을 ‘디지털·저탄소’에 맞춘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11일 폴리텍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융합(AI+x)과 저탄소 분야 학과를 총 10개 신설해 인력 양성 규모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로 산업의 디지털화 및 저탄소 전환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올해 300억 원을 투입해 폴리텍에 인공지능융합(AI+x), 저탄소 분야 학과를 각각 5개씩 추가로 신설한다. 기존 7개 캠퍼스 10개 과에서 14개 캠퍼스 20개 과로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인원은 45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학과 신설에 따라 2024학년도에는 AI산업안전시스템과를 비롯해 디지털기계시스템과, 전기자동차과 등이 새로 들어선다. AI산업안전시스템과는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 영상감시,

산업용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인다. 또 사고와 재해를 예측·예방하는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기계시스템과는 기계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학과로 생산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설비 운영, 공정 관리를 교육한다. 전기자동차과는 내연기관차의 분해 정비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기·전자 장치, 배터리 등을 다루는 친환경차 전문 진단·정비 인력을 키운다.

폴리텍은 산업 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학과를 유연하게 재편하면서 신기술 훈련 비중을 지속해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17년 9개 과였던 폴리텍 신기술 학과는 올해 93개 과로 10배가량 늘었다. 전체 학과의 37% 수준이다.

청년층의 신기술 분야 고수준 훈련 기회도 늘려나간다. 학력이 높은 청년 구직자 등을 고급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하이테크과정’을 올해 1530명에서 2026년까지 283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서비스 정착 도모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11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50대 이상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재단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단 측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

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보 등이다.

재단은 “아울러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뿐만 아니라 제도에 관심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탤런트 이 경영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AMAS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삽인삽/한평삽/무점포

맞춤깔창의 대중화 선언

극소자본 창업

AMAS장비 무상지원

1년 무상 리폼을 통한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수욱~쑥

어린이성장깔창

10분 만에 측정하고 제작을 완성하는
초간편! 초저가! 최고의 가성비!



세상 사람들의 발 아치(족궁)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깔창을 신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
발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8230538136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부산시, 전력반도체 생산거점 도약 위한 밑그림 본격화

동남권방사선과학 산단 점검
안정적 전력공급·진입도로 개설
추진단 구성해 로드맵 등 마련

부산시가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거점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11일 기장군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전력반도체 현장방문 연계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력반도체는 반도체 웨이퍼 소재로 기존 실리콘 대신 탄화규소(SiC) 질화갈륨(GaN) 등을 사용해 고온에 강하고 전력손실이 적은 반도체다. 전자기·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쓰여 차세대 반도체로 불린다.

시는 이번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점검하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고, 부산이 전력반도체 생산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묘안을 찾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동남권방사선과학 산단단지에서 전력반도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부산이 전력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고성능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부산을 중심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회의에서는 전력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중입자가속기 구축, 수출형 실험연구로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집적화된 동남권방사선·과학 일 반산업단지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진입도로 개설, 유치 기업 수요에 대응할 추가 부지 확보 등 산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앞으로 부산형 전력반도체 산업 육

성 전략,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전력반도체 생산거점이 될 부산의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밑그림을 그려 나갈 계획이다.

시는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부산 특화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로드맵 마련, 고성능 화합물 전력반도체 전주기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전력·가스공급·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기업 유치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기차 등 수요 증대에 따라 전력반도체 시장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전력반도체 핵심기술 자립을 통한 국내 공급망을 확보해 기업 생태계를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안동시

현대 인문가치 모색·공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경북도·안동시 주최(재)한국정신문화재단 주관인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10월 27~29일 개최된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문가치를 모색·공유하며 보다 나은 삶과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간다움, 우리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오늘날 인간다움과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 가치와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회복하기 위한 성찰과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부산시

친환경 교통주간 운영 나서

부산시는 세계 차 없는 날(9월22일)을 기념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친환경 교통주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 교통주간은 자가용 자동차 이용에 따른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 611만t으로 이는 전체 배출량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2023년 7월 기준)의 총 대수는 151만6443대로, 이중 자가용은 134만542대다.

/부산=이도식 기자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억 돌파

산청군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이 1억원을 돌파하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11일 산청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8개월 만에 기부금이 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모금액은 1억 600만원으로 1300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지역별 기부자로는 경남 1018명(76%), 전남 161명(12%), 부산 49명(3%), 서울 27명(2%), 경기 26명(2%) 등으로 경남지역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가 각각 30%, 22%로 가장 많았고 60~70대 이상 기부자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남해군

남해화폐 화전 특별판매 진행

남해군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화전 사용하Go·명절·축제 즐기Go·남해경제 살리Go'란 테마로 남해화폐 화전(花錢) 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 기간에는 지류와 카드에 한하여 통합으로 월 10만원의 개인 구매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 발행한다.

9월에 이미 10만원을 지류나 카드로 구매한 이는 추가로 10만원을 구매 할 수 있으며 아직 구입하지 않은 이는 20만원 구매가 가능하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전남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연구개발 예산 191억... 402% 증액

(전년비)

총사업비 기준 4140억 확보
AI융합지능형 농업 등도 반영

전남도가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 경비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미래 전략산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보다 153억 원 증가한 191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기준은 전년보다 3876억 원 늘어난 4140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16.6%로 가장 많이 삭감됐지만 전남도 신규 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402%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반영 신규사업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10억원',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15억원', '웹타이드 핵심기술 개발·검증 사업 14억원', '초소형 전기차 플랫폼 수요



지난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항우연

연계형 부품 기술개발 10억원', '전기자동차 주요 부품 재제조 기술개발 40억원' 등이다.

또 '인공지능(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31억원', '비행성능 시험장 안전성 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8억원', '혁신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 지원 13억원' 등도 반영됐다. /전남=양수현 기자 ysn6313@

여수시서 해양미래 위해 세계인 모인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 총회

만과 해양의 미래 비전을 위해 세계인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여수에 마련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여수에서 '제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협회(이하 세계만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연차회의로 해양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 세계인의 지혜를 모으고, 회원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자리다.

세계만협회는 전 세계 21개국 43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회로, 본부는 프랑스 반(Vannes) 시 청사 내에 위치해 있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창원시,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추석 앞두고 선제적 대응

경남 창원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둔화된 가운데 추석을 앞둔 수산물 업계의 타격이 우려되자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20억원을 오는 13일 오전 9시와 11시, 2회에 걸쳐 발행한다.

정부 발행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창원시가 처음이다. 이번 추석이 하반기 지역 상권의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20만원권 등 네 종류로

제공된다.

상품권은 비플래이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살 수 있다.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20만원권은 17만원, 5만원권은 4만2500원, 1만원권은 8500원에 살 수 있다. 개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은 지역 전통시장(29개)의 497개 수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처는 창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알림마당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수산물 가맹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 수산물 모바일 누리전은 정부에서 발행한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시, 취업준비 청년에 지역기업 소개

취업박람회 '단디JOB자! 페스티벌'

대구광역시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청년에게 지역의 우수기업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DGB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취업박람회 '단디JOB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대구광역시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

성된 협업체계 플랫폼)을 통해 한국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DGB금융그룹의 후원과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이 공동 협찬한다.

본 행사는 고용친화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NGO 단체 등 지역 우수기업 46개사가 참여하며, 보수, 근무환경, 직무의 세부적인 내용 등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사업 덩치 키우고 대체식품 개발... 식품업계, 생존 사활

매일유업 식물성 대체유 개발
아몬드브리즈 등 시장 포문

엠스씨드 풀바셋 DT매장 확대
작년 영업이익 148억, 111% 증가

동원F&B 크리스피 프레시 확장
식자재 자체조달로 수익 극대화



크리스피 프레시



크리스탈 제이드 도곡점

식품회사들이 성장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 사업 외에 외식사업과 대체 식품 개발에 힘주고 있다. 유제품 제조 개발 기업 매일유업과 동원그룹의 종합식품회사 동원 F&B가 대표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저출산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대응으로 신사업 확대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우유, 분유를 비롯한 유제품 수요 부진 등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물성 대체유 개발과 지주회사인 매일홀딩스를 중심으로 수익다변화에 나섰다.

매일홀딩스 자회사 엠스씨드는 외식 사업 덩치를 키우고 있다.

엠스씨드는 커피전문점 '풀바셋'과 이탈리아 레스토랑 '더 키친 일브로노', 중식당 '크리스탈 제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크리스탈 제이드는 전세계 12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중식당으로 매일유업은 2009년부터 국내 크

리스탈 제이드의 운영을 맡고 있다. 현재 크리스탈 제이드의 국내 매장수는 15개에 달한다.

커피 전문점 풀바셋도 연간 10여개 안팎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운영 매장은 138개다.

풀바셋은 올해 DT(드라이브스루) 매장 확대에 집중했다. 1월부터 8월까지 문을 연 19개 매장(리뉴얼 포함) 중 8개 매장(약 42%)이 DT 매장이다.

풀바셋은 매장 수가 적어 타 커피전문점에 비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사측은 무조건 매장을 늘리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회전율이 높은 DT 매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엠스씨드의 지난해 영업이익

은 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고, 특히 크리스탈제이드는 지난해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 제작년 3억원 영업이익에서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일유업의 영업이익이 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줄어든 것과는 상반된다.

동원F&B는 자회사 동원홈푸드가 2020년과 2021년 각각 선보인 샐러드 브랜드 '크리스피 프레시'와 이탈리아 가정식 레스토랑 브랜드 '포르투7' 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크리스피 프레시는 현재 12개 매장을 두고 있으며 포르투7은 지난달 4번째 매장 '롯데몰 김포공항점'을 열었다.

외식사업 덩치를 키우는 데에는 자체적으로 식자재 조달이 가능해 수익성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피 프레시와 포

르투7 모두 국내 최대 수산 기업 동원산업이 엄선한 신선한 연어와 참치, 국내 B2B 조미식품 1위 동원홈푸드의 소스를 사용한다.

대체 식품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매일유업은 현재 대체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5년 '아몬드브리즈'를 국내에 들여와 국내 대체유 시장 경쟁의 포문을 열었으며 2021년 자체 개발한 '어메이징 오트' 브랜드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어메이징 오트는 출시 1년 만에 판매량 2000만팩을 넘어섰으며 매일유업의 지난해 전체 식물성 음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했다. 커피 전문점들이 우유 대신 식물성 대체유를 옵션에 포함시키면서 대체유의 B2B 사업 확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 주요 계열사 하반기 온라인 신입 채용

CJ는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ENM, CJ올리브영 등 주요 계열사에서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는 테스트와 1차·2차 면접, 직무수행능력평가(인턴십) 등 계열사별 맞춤형 전형을 거치게 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경 입사하게 된다.

지원자들은 모집 계열사 중 1곳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각 계열사 사업분야 및 직무에 따라 맞춤형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확인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컬리너리스퀘어 바이 아워홈' 아워홈, 브랜드 론칭

글로벌 푸드케어&케이터링 기업 아워홈이 여의도 IFCC몰 지하 3층에 프리미엄 푸드홀 브랜드 '컬리너리스퀘어 바이 아워홈'을 새롭게 론칭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워홈은 '전세계 식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하고 일상의 휴식과 여유로움, 셀렘이 공존하는 광장과 같은 공간'을 브랜드 콘셉트로 잡았다. '컬리너리'는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과 글로벌 축제 속 음식까지 다양한 음식을 주제로 새로운 맛과 멋을 제안한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스퀘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며 재충전할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을 지향한다.

편안한 식사와 휴식이 가능한 차별화된 공간 설계를 중심으로, 전세계 다채로운 식문화를 경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신원선 기자

베스킨라빈스 쿠키런 협업 키링 선봬

SPC 베스킨라빈스가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과의 협업을 기념해 덕심을 자극할 '쿠키런: 킹덤 영혼석 키링 베스킨라빈스 에디션'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두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쿠키런: 킹덤 영혼석 키링 베스킨라빈스 에디션'은 베스킨라빈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영혼석 키링 3종'과 쿠키런에서 베스킨라빈스에서 한정적으로 선보이는 '리미티드 영혼석 키링 7종'을 포함해 총 10종이 랜덤으로 구성됐다.

베스킨라빈스는 굿즈출시를 기념해 오는 21일까지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2030세대 잡아라"... 신세계百, 뉴 스트리트 전문관 오픈

강남점 8층에 벌스데이수트 유치
에이트디비전 등 브랜드 '한곳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스트리트 패션 전문관을 열고 2030세대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신세계에 따르면 강남점 본관 8층이 '뉴 스트리트' 전문관으로 새단장해 문을 열었다. 신세계는 젊은 감각의 새로운 브랜드를 대거 유입해 2030세대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트리트 브랜드 '벌스데이수트'와 '우알롱' 매장을 업계 최초로 유치했다. 또 '에이트디비전(8 Division) 프로젝트(PROJECT)' 등 젊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브랜드를 한 데 모은 편집 매장도 국내 백화점 처음으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8층 '뉴 스트리트'에 자리한 '이미스'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고객들.

/신세계

입점한다. 프로젝트 매장에서 유명 스트리트 브랜드 '스투시'도 판매한다.

아울러 지난 2월 부산 센텀시티점 '하이퍼그라운드'에서 먼저 선보여 인기를 끌었던 '이미스', '포터리', '인스턴트핑

크', '아웃스탠딩' 등도 입점했다. 강남점보다 먼저 MZ 전문관으로 재개장한 하이퍼그라운드는 지난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20대와 30대 고객이 각각 101%, 87% 늘고, 부산 외 지역 고객 수가 6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CJ제일제당, 배달커머스 상품 개발 나서

우아한형제들과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배달커머스 전용 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제휴협약(JBP)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CJ제일제당 김상익 식품한국총괄, 김현진 디지털사업본부

장, 최자은 마케팅본부장, 임현동 이커머스담당과 우아한형제들 이국환 대표, 권재홍 사업본부장, 전성준 커머스센터장, 권혁진 MD실장 등 양사 경영진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CJ제일제당은 자사의 제품 기획·제조 경쟁력과 배민의 데이터·플랫폼 운영·물류 인프라 경쟁력이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케팅과 유통 부문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신원선 기자

풀무원, 업계 첫 '수소 전기트럭' 도입

ESG경영 일환... 온실가스 저감 기대

풀무원이 ESG경영 실천을 위해 식품업계 최초로 물류 현장에 저공해 차량인 수소 전기트럭을 도입한다.

풀무원은 수소 전기트럭이 기존 경유차 대비 투입 비용이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 화물차에 수소 전기트럭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충북 음성-시화, 음성-여주 2개

물류 노선의 건면, 김 등 상온 제품 운송에 사용되고 있으며 내년에 냉장 제품 운송이 가능한 냉장 수소 전기트럭 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상온, 냉장 수소 전기트럭을 총 76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풀무원이 도입한 수소 전기트럭은 환경부 저공해 차량 1종 인증을 받은 차량이다. 기존 디젤 트럭과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한국콜마, 인터코스코리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1심 승소

자외선 차단제 기술 탈취 법적 분쟁
법원, 영업비밀 폐기·2억 지급 판결
한국콜마 “인터코스 항소시 적극 대응”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한국콜마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업체 인터코스코리아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인터코스코리아가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콜마는 자외선차단제(선케어) 핵심 기술을 훔친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한국콜마의 기술을 유출한 한국콜마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 코리아에게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국내 건설한 기업의 사업 근본을 해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부도덕한 기술 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인터코스코리아의 항소를 예상하고 있

다”며 “30여 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선케어 기술을 한 순간에 훔쳐간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고기능성 자외선 차단 기술 등 50여개의 선케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자외선 전문 연구소인 ‘유브이 테크 이노베이션 연구소(UV TECH innovation R&D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 한국콜마에 입사해 2018년에 퇴사한 A씨는 한국콜마 퇴사일주일 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지난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가 입사한 2018년부터 선케어 제품을 만들었다.

A씨가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관련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무단 반출한 것이다. 같은 해 발생한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제품 매출액만 약 46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콜마 관계자는 “약 460억원이 한국콜마의 매출이 될 수도 있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품군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직·간접적으로 선케어 제품 관련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터코스코리아가 2018년에만 선케어 관련 44건의 식약처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터코스코리아가 탈취한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A씨를 비롯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도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다음 부정행위 방법으로 핵심 기술 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2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청하 수습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동국제약 송준호 대표이사(왼쪽)와 큐비엠 장유경 대표이사가 지난 7일 기능성 소재 제품화 관련 상생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제약-큐비엠 기능성 소재 제품화 맞손

동국제약이 큐비엠과 기능성 소재 제품화 관련 상생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체결된 이번 협약은 제약기술을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온 동국제약과 ‘해양수산부의 신기술기업 1호 국가대표 혁신기업1000’에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 큐비엠이 보유한 다수의 기능성 소재의 건강기능식품 제품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유럽진출 10주년 인플릭시맙 처방 1위 ‘쾌거’

올해 1분기 유럽 시장 점유율 56%
글로벌 캠페인 전개... 성과 재조명



램시마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램시마’가 9월 유럽 진출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3 유럽장질환학회(UEGW)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연차 투어, 심포지엄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램시마는 지난 2013년 9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다. 회사측은 램시마가 지난 10년 동안 걸어왔던 성과들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램시마는 지난 2017년 오리지널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인플릭시맙 처방 1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램시마는 올 1분기 영국 83%, 프랑스 61%를 비롯해 유럽에서 5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인 램시마SC를 연이어 런칭하면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특히 램시마SC는 기존 정맥주사제형인 램시마와는 달리 장소에 제약 없이 간편하게 자가투여가 가능하고, 환자들의 내원 횟수가 줄어 의료진에게도 이익이 되는 치료제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램시마SC의 미국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회사측은 오는 10월 판매 허가를 통해 내년 상반기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LG생활건강, ‘멸균팩 재활용지’ 포장 확대

멸균팩 재활용 통해 자원순환 앞장



오는 10월부터 LG생활건강의 페리오 프로폴리스 치약 포장재에 멸균팩 재활용지가 사용된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국내 화장품·생활용품 업계 최초로 연간 최대 1081톤의 종이 포장재에 ‘멸균팩 재활용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8일 LG생활건강은 한솔제지를 비롯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과 멸균팩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생활건강은 멸균팩 재활용지의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과 생활용품에서 멸균팩 재활용지 사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재활용된 멸균팩으로 생산한 종이를 페리오, 죽염 등 LG생활건강 치약 브랜드의 날개상자 포장지로 활용한다. 향후 신제품 화장품 세트와 2024 설 명절 선물 세트에도 멸균팩 재활용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청하 수습기자

유한양행-플루토 ‘애니콘주’ 판매 업무협약

유한양행과 플루토가 지난 6일 반려동물 관절 건강을 위한 주사제 ‘애니콘주(AniConju)’ 판매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9월 중순경 국내 시장에 애니콘주를 출시하고, 플루토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애니콘주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성분으로 구성된 동물용의료가기로 골관절염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이다. 애니콘주는 지난 4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 참당귀녹용황기 복합추출물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허가

광동제약은 자사가 개발한 ‘참당귀 녹용황기 복합추출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시된 품목 이외에 안전성과 기능성을 과학적 증명을 통해 입증하여 제조자가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로 개발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자가 소요된다.

회사는 지난 7월 국내 1호로 ‘녹용당귀 등 복합추출물’의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허가를 받는데 이어 연달아 2호까지 획득하며, 다년간의 천연물 소재 연구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당귀녹용황기 복합추출물은 활성산소감소, 무산소성 대사감소 등의 인체 기전에 영향을 주어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세경 기자

신세계백화점, 자기관리 건강식품 라인업 확대

비타민, 수면관리 상품 등 선택

신세계백화점이 추석을 맞아 ‘셀프메디케이션족’을 위한 자기관리 건강식품을 대폭 늘렸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홍삼이나 오메가3 같은 전통적인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피부 미용과 수면 관리 등 자기관리를 도와주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상품 라인업을 대폭 늘렸다. /최빛나 기자 vitna@

우선 수면 관리 상품을 처음으로 명절 카탈로그에 담았다. 특히 인증을 받은 수면 음료 ‘슬리핑 보틀(10만원)’이 대표적이다.

또 기존 명절 카탈로그에는 없었던 ‘고함량 비타민’ 카테고리도 새롭게 마련하고 선물세트 수도 전년보다 6배 늘렸다.

이러부터 상품도 준비했다. ‘에버콜라겐 코큐3 입 세트(15만9000원)’, ‘뉴트리코어 맥스 글루타치온 세트(120매·14만7000원)’ 등이다.

미샤, 14일부터 ‘개똥썩’ 전 라인업 할인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유튜브에서 선공개한 광고 영상이 조회수를 약 439만 회 기록한 가운데 TV 광고 시작을 기념한 ‘100일 발효 급속 진정 개똥썩’ 프로모션을 마쳤다.

미샤는 이번 프로모션을 공식몰 에이블샵에서 오는 14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똥썩 전 라인업을 30%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청하 수습기자

개똥썩 라인이나 미샤 5대 앰플 글로벌 에디션 포함해 3만원 이상 구매 시 썩향 인센스도 추가 증정할 예정이다.

미샤는 광고 영상에 할리우드 배우 엘리자베스 올슨의 꾸미지 않은 모습을 담아 진정한 아름다움은 연출되거나 꾸며지는 것이 아닌 본질 그 자체에 있다는 메시지를 표현했다.

MIGUEL
CHEVALIERE

DIGITAL
BEAUTY
2023

SEASON 2



미구엘 슈발리에

디지털 뷰티
리뷰 시즌 2

아라아트센터

2023. 8. 1 - 2024. 2. 12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신보-우리은행, 中企 디지털 플랫폼 혁신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의 디지털-데이터 플랫폼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플랫폼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데이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캠코,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 전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을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개최한다. 캠코 대회의실에서 권남주 사장(가운데)과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 홍보를 위한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캠코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 '노 엑시트' 캠페인 참여

SBI저축은행이 마약에 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SBI저축은행은 마약 중독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김문석 대표이사가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께 마약 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BI저축은행



호서대-시몬스, '인재양성·산학협력' MOU

호서대학교는 시몬스와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재 양성 및 산학 협력 방안 구축 등을 위한 방안과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종원 호서대 학사부총장(오른쪽)과 김성준 시몬스 부사장(왼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호서대



현대위아, 전국 사업장서 미술 전시회 개최

현대위아가 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현대위아는 지난달 29일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본사와 경기도 의왕시 의왕연구소 등 전국 각 사업장에서 '현대위아 아트페어'를 개최했다.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현대위아



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로그 디자인

윗목과 아랫목 중 어디가 따뜻한 곳일까? 온돌방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아궁이에서 가까운 쪽의 방바닥인 아랫목이 아궁이로부터 먼 쪽에 있어 불길이 잘 닿지 않는 윗목보다 따뜻하기 마련이다. 기형도 시인은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썼다. 윗목은 그러니까 따뜻함으로부터 먼, 차가움에서 추론하여 불안감, 외로움, 배고픔 등을 연상시키고, 거기에 문풍지가 떨어져서 너털너털한 것 같은 가난하고 초라한 풍경을 펼쳐 놓는다. 기형도 시인은 29세에 요절했다. 1989년 3월 7일이었다. 삼개월 후쯤 유고시집 '입속의 검은 잎'이 발행되었고, 거기에 수많은 윗목의 상징들이 담겨 있었다.

아랫목으로의 초대

그리고 한참 지나서 시인의 어머니는 팔순이 되어서야 아들의 작품을 읽을 수 있었다. 글을 읽고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한 신문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얼무 삼십단, 그건 내가 한 거니까. 아들이 그 걸 시로 썼구나, 그랬지. 그래도 머리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인의 어머니는 왜 머리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을까?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다시 읽어보았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의 은유·직유·대유적 표현에 이어 '내 유년의 윗목'으로 마감하는 문학적 구조가 이제 막 글을 깨친 어머니에겐 마땅치 않았으리라. 그렇겠다. '얼무 삼십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오시네./...방에 혼자 앞드려 훌쩍거리던'과 같은 구체적 표상들을 읽으면

마치 아들이 살아 있는 듯 선연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글을 다 이해할 것 같이 기쁘다가도 추상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불쑥 나서면 또 낙담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이제 글쓰기를 떼고 시짓기로 넘어가야겠다고 다짐했을 지도 모른다. 재작년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한 문해교육 시화전에 가보았다. 시·군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 온 작품들이니 모두 만만찮았다. 그 중 오랫동안 머물며 읽은 시가 '엄마 문자로 하세요'였다. 학교 청소에 식당 설거지로 생업을 이끈 어머니가 이민 간 딸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시다. 딸은 야속하게도 문자를 남기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듣고 싶은 목소리 참으며 한자 한자 익힌 글자로 딸아, 언젠가 멋있게 편지를 쓰마.' 또 최근엔 음성군 설성평생학습

관에서 문해교육 강의실을 엿볼 수 있었다. 박장대소에 강의실이 들썩 들썩하여 물어봤더니 중등 검정고시 합격생 어머니들이 4명이나 나왔다고 했다. 무엇보다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을 이제 마친 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시험삼아 공부해서 모두 합격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단하다고 연신 박수를 치면서도 어머니들이 살아 온 인생의 윗목이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매년 9월이 되면 세계 문해(文解)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을 맞아 전국이 들썩인다. 유네스코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하여 문해상을 제정하였는데, 그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이다. 이제는 윗목이 차가우니 아랫목으로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문해교육이 그런 자리를 만든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경제계, '다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기' 본격 추진

상의 노량진서 수산물 구매 전경련 농어촌 여행 등 제안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다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 홍보하고 구입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 농수산물 소비를 진작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곳곳을 돌며 시장 방문객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우리 수산물을 홍보했다. 이후 임직원들은 사전에 지급받은 은누리상품권 20만 원을 활용해

인당 10~20만 원어치의 수산물을 구매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석 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 사랑 캠페인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원사에도 추석 선물로우리 농수산물 이용을 요청하는 등 캠페인을 홍보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1일 추석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류진 전경련 회장은 이날 회원사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매일수록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농어민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회원사들에 ▲구내식당 단체급식에 국내 수산물 이용 ▲추석 명절 선물 시 국내 농수산물 구매 ▲추석 연휴에 농어촌으로 여행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조기 지급 등 4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구내식당 급식을 담당하는 CJ프레시웨이와 함께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수산물 안심 소비 캠페인을 진행한다. 류 회장도 이날 오전 구내식당에서 전경련 임직원들과 함께 전복죽 등 국내 수산물로 식사한다. 이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고 어민과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진정성 있는 ESG경영 지속"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이 일회용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LG이노텍은 11일 정 사장이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챌린지는 환경부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1회용품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의미하는 포스트 사진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 사장은 LX세미콘 손보의 대표에 지목됐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박원철 SKC 사장과 문홍성(㈜두산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정철동 사장은 "LG이노텍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No.1 소재·부품 기업'으로서 진정한 ESG 경영을 지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LG, 파리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부산엑스포' 홍보

타임스퀘어 등서 옥외광고

LG가 엑스포 개최지를 발표할 프랑스 파리에서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알리기를 이어간다. LG는 7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도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본격화했다고 11일 밝혔다. LG는 지난해 6월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 등 랜드마크 대형 옥외광고관에 유치를 알려왔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억원에 부산의 매력을 어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리는 엑스포 유치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개최지다. 오는 11월 28일 173회 BIE 총회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설치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광고

에서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LG는 샤를드골 국제공항에 6개 대형 옥외광고관에 응원문구를 선보였다. 부산(BUSAN) 알파벳 5개를 이용해 부산 랜드마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부산 매력을 전한다. 지난 6월 제172회 BI 총회 당시에

도 공항과 BIE 개최 지역 곳곳에 100여개 광고판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김재웅 기자 juk@



인사

- ◆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 국립축산과학원장 임기순
- ◆ 외교부 ◇ 공관장 △ 주OECD대사 최상대 ◇ 공장급 △ 기획조정실 조정기획관 송시진

부음

▲ 이을선씨 별세, 전영호·재호·문호(의성군 안평면장)씨 모친상= 11일 오전, DCMC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053-650-4444



한국외대, 첨단지식을 HUFSS하다

글로벌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대학, 한국외대 2024학년도 신설학부



Language & AI융합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AI데이터융합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
3년 연속 선정

100개국 617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 협력

캠퍼스 구분 없는
이중전공 &
7+1 해외파견

특수외국어
16개 포함
45개 외국어 교육

다양한 현장
글로벌 인턴십과
취업 지원

Come to HUFSS Meet the World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3. 9. 12.(화) 10:00 ~ 9. 15.(금) 17:00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만화와 웹툰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아직도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평균 3만 6000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지만, 코로나 19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다. 주변에서도 코로나 19 확진보다 독감에 걸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의 위력은 약해졌고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난 수년간 막혀있던 하늘길도 열리고 TV 방송들은 앞다투어 해외여행 관련 방송들을 내보내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 방송을 보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방송국의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섭외도 가능했을 것이다. 필자 주변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정식으로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일본어 회화를 능숙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몇 명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 빠져서 일본어를 독학했다는 것이다.

필자도 유학을 준비하면서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일본 드라마는 우리와는 다른 분위기로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 당시 그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차이로 이해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조금 생활하다 보니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원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드라마는 우리의 일상이 소재가 되었고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드라마 대본을 작성했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는 원작 대부분이 만화라는 것이었다. 일본 편지점 가판대에는 다양한 잡지와 함께 항상 만화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간, 계간, 월간으로 발간되는 수많은 만화책이 있고 그중에서 인기를 끄는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것이었다. 이미 만화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한차례 검증이 되어 제작자로서는 실패의 위험이 적었을 것이고 시청자는 소문으로 들었거나 만화를 통해 익숙한 내용을 영상으로 접하게 되니 시청률도 높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종이로 된 만화책이 문화의 하나로 자리를 잡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화책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통신(IC

T) 산업의 발달은 이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PC와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이 발달하였고 웹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웹툰 작가의 작품이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되었다. 예전 일본의 만화책이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웹툰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만화가 인정받는 창작물로서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고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가 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만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만화산업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웹툰의 부상을 보면 정보통신과 플랫폼 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화와 웹툰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만화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웹툰으로 재평가되는 것은 마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어쩐지 만화는 일본, 웹툰은 한국의 진화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다.

/ 김양평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물가 뿔박질에 임금삭감... 상저하고 석 달 남아



김연세
(정책사회부)

국내 휘발유 값이 두 달 넘게 오름세다. 지난 7월6일 기준 차량 휘발유값으로 리터(1)당 평균 1568원에 주유했으나 9월11일 기준 1757원을 내야 한다. 200원 가까이 올랐으니 가득(50ℓ 내외) 넣는다고 치면 7월 초보다 1만 원 더 꺼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유류세 인하 연장이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지만 역부족이다. 주요산유국협약체(OPEC+)의 감산 연장 탓에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8월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5.4% 올

랐다. 사과(30.5%)와 복숭아(23.8), 고구마(22.0%) 등이 치솟았다. 7월 하순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여파다. 전기·가스·수도요금 상승률은 20%대를 기록했고, 택시(19.1%)와 시내버스(8.1%) 요금도 크게 올랐다. 외식 물가는 5.3%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총가구 빛(가계대출잔액)이 올해 6월 기준 1748조 원이다. 3월에 비해 10조 원 이상 불어났다. 물가는 뛰는데 빛은 늘었다. 게다가 실질임금마저 쪼그라들었다. 올해 4~6월 직장인들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334만 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1~3월(387만 원)과 비교해 50만 원 이상 줄었다. 또 2년 전인 2021년 4~6월 평균(339만 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우리나라 가구의 구매력이 점점 쇠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 역제를 위해선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국가 성장률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마저 올해 GDP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0%대 성장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진퇴유곡의 상황이다. 이달까지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부진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는 커녕 내년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가 돌아왔으나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이 어떻게 회복할 지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국민은 어렵고, 국가 경제엔 빛이 들질 않는다. 기재부 등 경제팀은 하반기에 잘 될 것이라고 반복해 말한다. 곧 4분기에 접어든다. 비책이 전혀 없는 건가. /kys@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부자들의 자산관리법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지만 소부자도 마냥가지지 싶다. 부자들은 자산관리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다. 자산이 축나지 않게 지키고 신경 쓰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사주 상담을 하면서 자산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울 점이 많다는 걸 느낀다. 자산가들과 투자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진 만큼 노력을 한다는 걸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남의 탓으로 자기는 부자 되기는 틀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작 부자들에게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부자들의 자산 관리 방법은 저마다 다른데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채테크를 해 본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시장은 항상 변화한다. 날마다 달마다 미세하게라도 변한다. 부자들은 그런 변화를 쫓는다. 수시로 자료를 조사하고 금리에 따른 영향을 세세히 살핀다. 두 번째는 시장변동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바꾼다. 코로나가 번창하는 동안 시장은 급락과 급등을 빠르게 오갔다. 부자들은 시장을 주시하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투자 전략을 바꾸며 수익을 올렸다. 세 번째는 투자 비율을 항상 검토한다. 수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에 투자금액 비중을 높이고 수익이 의심스러운 곳에는 투자를 줄인다. 투자 분야는 다양하다. 주식 채권 부동산은 물론이고 금이나 곡물 그리고 달러 등을 넘나들며 비율을 조정한다. 부자들은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고 투자법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부 또 공부에 매진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니 계으를 것 같지만 부자라고요 열심히 땀 흘린다. 대중 편하게 살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자극하는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4		8	
	9		5	1	8
1	3	4			2
	2		7		1
	3				7
5		1		2	
	6			5	7
	1	9		6	
		7		4	

1	8				9
3			9	1	2
	4		8	2	
	2	5		4	5
	7	1	3		7
			8	2	6
	4		9	3	
5					9
					3

정답

8	9	4	1	6	2	5	3	7
2	5	8	4	9	8	6	1	2
6	1	2	5	3	7	8	9	4
5	4	7	6	8	1	9	2	3
9	2	8	3	4	5	1	6	7
1	6	5	2	7	9	3	4	8
5	2	6	9	2	4	7	8	1
4	8	1	5	9	2	6	7	3
2	7	8	9	1	6	4	3	5

5	6	2	2	4	1	8	9	9
9	8	1	9	8	6	2	4	2
4	2	9	5	8	8	1	6	6
2	4	6	8	9	8	1	2	9
8	5	2	6	1	9	5	2	4
9	1	9	4	2	6	8	8	8
1	9	8	2	8	9	4	6	2
2	2	8	1	6	4	9	9	8
6	9	4	9	2	2	8	1	1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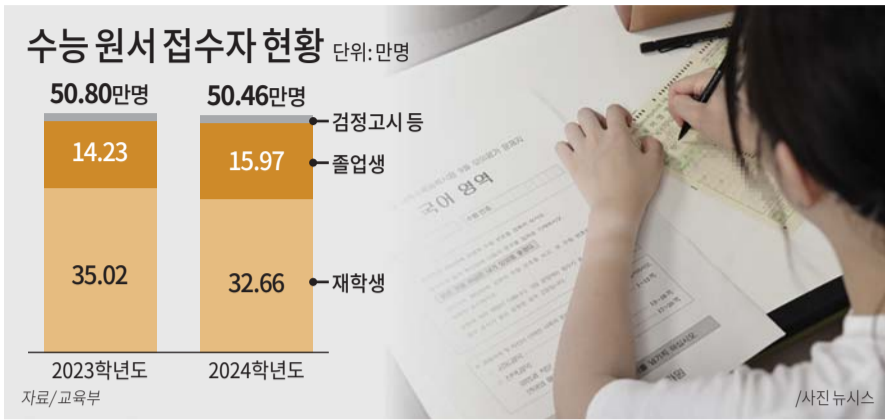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6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7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올 수능 3명 중 1명 'N수생'... “이과 상위권 경쟁 치열할 것”

2024 수능 응시자 50만4588명
졸업생 비중 28년 만에 '최고치'
킬러문항 배제돼 부담 완화 영향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442명 줄어 50만 4588명으로 이중 30% 이상이 N수생(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과 N수생 수가 크게 늘면서 통합수능에서의 유리함과 의학 계열 선호도 증가 등으로 더욱 치열한 상위권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8일까지 실시한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수험생 총 50만4588명이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442명 감소한 수치다.

N수생 규모는 28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고3 재학생은 응시자 64.7%에 해당하는 32만 6646명으로 지난해보다

6.7% 줄어든 반면, 졸업생은 전체 인원의 31.7%인 15만 9742명으로 지난해보다 12.3% 늘었다. 고교 자퇴 후 수능을 대비하는 검정고시생 등은 1만8200명(3.6%)이다.

졸업생에 검정고시생 등을 모두 합하면 17만7942명으로 35.3%를 차지한다. 1995학년도 38.9%, 1996학년도 37.3% 이후 역대 최고다.

이처럼 재수생이 증가하는 요인은 수

능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돼 수능 부담이 완화되며 N수생 도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수능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통합수능에서 이과생이 유리한 점, 의학 계열 선호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이과 재수생 수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수능 이과생 비율(과학탐

구 선택자 비율)은 사회·과학탐구를 분리 발표한 2005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은 49.8%로 지난해 48.1%보다 1.9%p 늘었다. 과학탐구Ⅱ 응시자도 서울대 지원자격 제한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만5989명에서 올해 2만8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탐구 영역 지원자 중 ▲사회탐구 영역만 선택한 지원자 23만4915명(48.2%) ▲과학탐구 영역만 선택한 지원자 23만2966명(47.8%) ▲사회탐구 1개 과목과 과학탐구 1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 1만9188명(4.0%) 등이다.

이외 영역별로 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자 50만4588명 중 ▲국어 영역 50만1321명(99.4%) ▲수학 영역 47만8083명(94.7%) ▲영어 영역 49만8502명(98.8%) ▲한국사 영역 50만4588명(100%) ▲탐구 영역 49만2519명(97.6%)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7만8849명(15.6%)이 선택했다.

국어 영역 지원자 중 ‘화법과 작문’ 선택자는 30만6418명(61.1%)으로 가장 많았다. ‘언어와 매체’ 선택자는 19만4903명(38.9%)으로 지난해(34.1%)보다 4.8%p 오른 비율을 나타냈다.

수학 영역 지원자 47만8083명 중 미적분 선택자는 23만5100명(49.2%)이다. 통합수능 첫 해 38.2%에서 지난해 43.7%로 오른 뒤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22만3550명(46.7%), 기하 선택자는 1만9433명(4.1%)이다.

올해 입시는 이과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대표는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이 쉽게 출제돼 국어, 탐구 영역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과 재수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과 상위권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투자유치 위해 용지계획 변경
업무시설 확대, 숙박·문화시설 축소



도를 확대하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과 문화·집회시설 비중을 축소했다.

서울시는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투자 유치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6월 16일 5차 매각이 유찰된 이후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공급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기타 업무시설 등 지정용

지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자세한 건축계획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서울시가 협상을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 참여 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용지공급 지침 자문단을 꾸려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지면 연말에 용지공급 공고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변경안은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와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 14일간 열람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인하대, 직무박람회 성료... 35개 기업 참여

13개 산업군, 멘토 40명 참여
IT, 이차전지 분야 주목 받아

인하대학교는 최근 ‘2023 직무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직무박람회는 인하대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현직자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실적인 취업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직무박람회에는 올해 취업준비 중인 학생 738명이 참여해 취업한 현직자 선배에게 직무·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조언을 들었다. 직무·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날 취업시장 속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직무박람회는 ‘졸업 선배에게 직접 듣는 나의 직무 이야기’를 주제로

열렸다. IT, MD, 건설·플랜트, 경영지원, 금융, 영업·마케팅 등 13개 산업군에 40명의 현직자가 멘토로 나섰다.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우리은행 등 35개 기업에 재직 중인 멘토들은 각각 마련한 부스에서 실질적인 직무 내용, 취업 준비과정, 성공 체험담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공유했다.

특히 하반기 채용 일정이 시작되면서 IT와 이차전지 분야 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 ON의 직무가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번 직무박람회는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와 진로 설정 방향성에 대한 노하우를 얻는 계 목적”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직무박람회를 계기로 적극적인 커리어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검단연장선 3개 신설역 이름 공모

한 달 간 역명 추천받아 내년 2월 확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25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에 신설되는 3개 역의 역명을 제정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한 달간 역명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계양역부터 검단신도시를 잇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은 총 길이 6.825km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7,277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다. 현재 공정률은 75%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정거장은 3개소로 각각 ▲101정거장(서구 원당동 1017번

지 일원) ▲102정거장(서구 원당동 636-15번지 일원) ▲103정거장(서구 불로동 608-16번지 일원)이다.

역명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이나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나 시설 명칭 등 시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가 쉬운 명칭으로 제정된다. 추천받은 역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역명 결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역명 추천은 의견수렴 기간인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폐기물 다량 배출 단속

서울시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감량하고, 혼합배출 방식을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혼합해 1일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버리는 사업장이다. 시는 각 자치구와 이달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한 달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12일 (화)
음력 : 7월 28일

수도권 날씨
22 ~ 29°C

운동 지수: [진행률 막대]
빨래 지수: [진행률 막대]
세차 지수: [진행률 막대]
외출 지수: [진행률 막대]

지역별 날씨: 연천 19/29, 동두천 19/29, 가평 19/29, 파주 19/29, 서울 22/29, 양평 20/28, 인천 22/28, 수원 21/28, 용인 21/28, 평택 20/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유커’·‘싼커’ 유입...하반기 경기 불확실성 속 내수 진작 이끌까 /사진 뉴스스
▲러, 우크라이나 4개 병합지서 첫 지방선거...여당 압승

▲시진핑, 한반도 유사시 투입 78집단군 시찰...전투 태세 강조
▲‘왕좌의 게임’ ‘백종원 한식’ 무대마라케시 유적, 모로코 강진에 무너져



▲룰라 “푸틴, 내년 G20 정상회의선 체포 걱정 안 해도 돼”
▲바이든 “중국 경제난으로 대만 침공 가능성 낮아져” /사진 뉴스스



사업 키우고
대체식품 개발
식품업계, 생존 사활
니



Life

한국콜마
인터코스코리아에
1심 승소
L2



소외아동 후원하고, 사회 자립 돕고... 미래 비추는 '따뜻한 빛'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태광그룹

“산업을 일으켜 국가의 재화를 늘리면 그것이 곧 애국이다.”(일주(一洲)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자)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태광그룹의 적극적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들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태광그룹은 힘든 여건 속에도 미래 인재 육성부터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확대하며 정도경영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도경영은 일주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의 핵심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미래 인재들을 위한 지원

태광그룹은 자사의 장학재단인 일주학술문화재단(이하 일주재단)을 통한 인재 육성 지원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일주재단은 우수한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 교육기관 지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산규모 '735억원'의 장학재단이다. 일주재단 장학사업은 '자원이 없는 나라일수록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재단 설립자 이임용 창업자의 철학에 따라 1991년 시작해 32년째 장학생 선발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 학사생을 포함해 국내외 석박사 총 1535명 장학생들에게 약 450억원을 지원했다.

선발된 국내학사 장학생들은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거주하는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멘토링활동에 주1회 2시간씩 참여하게 된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소규모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 시설이다. 그룹홈 멘토링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 장학생들이 학습지도를 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고(故) 이임용 태광그룹 회장.



이우진 일주학술문화재단 이사장(사진 가운데)과 2023년도 제 31기 장학생들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일주재단 통해 미래인재 육성 지원 그룹홈 아이들 위해 학습 지도 활동

독거노인 안부 챙기는 '사랑 잇는 전화' 취약계층 사회적 자립 돕는 정기후원도

故 이임용 창업주, 정도경영 혁신 이끌어 학교 설립, 공익사업 등 국가 발전 이바지

◆'행복한 동행'...소외계층 지원사업

태광그룹의인프라·레저계열사인티시스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손을 잡고 '행복한 동행 봉사단'을 설립 5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며 따뜻한 '사랑 잇는 전화' 사업으로 봉사자와 홀로 계신 어르신이 1:1로 매칭되어 주 2회 이상 안부전화를 드리는 활동이다.

회사는 당시 사내공모를 통해 60명의 나눔천사 봉사단을 선발했다. 이후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나눔천사 봉사단은 2020년 76명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 2022년 각각 114명, 105명의 봉사자가 활동했다. 올해는 지난 8월기준 100명의 인원이 봉사단으로 활동했다. 사랑잇기전화매칭 어르신에게 연 3회 쌀, 식품품, 마스크, 생활용품 등을 후원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티시스는 장애인의 사회진출과 재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큰희망'도 운영하고 있다. 티시스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소리책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등대장학사업 장학금 기부 등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했다.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대한화섬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바로 그룹홈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제도를 통한 정기 후원 활동이다. 태광산업·대한화섬은 2013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0년간 총 150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원 목적으로 '디딤씨앗통장' 제도를 개설해 약 5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

다. 또 2026년 6월까지 3년 동안 1억5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추가로 전달 해 13년간 약 6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진환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그룹홈 아동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과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보국' 이임용 창업주

일주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자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정도경영 혁신을 이끌어 냈다.

이 회장은 1921년 5월 7일 경상북도 영일군에서 출생했다. 1950년 10월 부인인 이선애 여사와 모직물을 생산하는 동양실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섬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54년 7월 부산 문현동에서 태광산업사를 설립, 독자경영을 시작했으며, 1961년 9월 이 회장은 태광산업사를 자본금 1억 원의 주식회사로 출범시켰다.

태광산업은 국내 최초로 아크릴섬유(1967년)와 스팬텍스(1979년)를 생산한 것에 이어 아크릴, 폴리에스터, 스팬텍스, 나일론 등 모든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섬유기업으로 성장한다. 1990년대에는 석유화학 분야에 진출한다. 1995년 울산에 석유화학 제1공장(PTA생산)에 이어 1997년 석유화학 2,3공장(프로필렌, 아크릴로니틸(A-N) 생산)을 각각 준공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섬유·석유화학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이 회장은 부국강병(富國強兵)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특히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여는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1977년 일주·세화학원은 학교 설립 비용을 출연해 1977년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1978년에 세화여중·고가, 1987년 세화고등학교가 각각 개교했다. 이 회장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며 법인 설립 이후에도 사재 102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국가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재를 출현해 1990년 7월 19일 일주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일주재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은 고스란히 소외계층 지원과 친환경 공익사업, 기부금 전달 등 '따뜻한 빛'이라는 태광그룹 사회공헌 슬로건에 맞는 계열사별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소통하고 신뢰 쌓고 젊어지는 조직문화

지난 6월, 워크숍 통해 의견 수렴
'조직문화 실천약속' 선정·공표

태광그룹은 임직원간 두터운 신뢰를 확보할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소통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지난 6월 29일에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2022년~2023년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직원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조직문화 실천약속'을 선정하여 공표했다.

실천약속은 지난해 말 과장급 이하 MZ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직문화 화 교육, 조직문화 워크숍과 지난 2월 관리 자급 리더십 교육을 통해 세대별 직원들이 생각하는 조직문화 저해요인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경영진과 함께 소통하고 핵심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미래를 공유하는 회사 만들기(경영설명회 시행), 전사 소통 활성화(전사 공동 행사 시행 및 조직문화 개선과제 발굴), 소통·신뢰하는 조직문화 구축(주니어보드 활동과 투명한 인사제도) 등이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관계자는 향후에는 연 2회 경영설명회를 통해서 경영현황과 비전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전사 공동 행사를 통해 전 임직원의 하나된 문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태광그룹 내 다른 계열사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 흥국생명 소비자보호팀은 감정노동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 치유 목적의 행사인 '힐링 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저축은행은 직원들의 역량 개발 니즈를 반영하여 임직원 대상 오피스 프로그램 교육을 신청자에게 한해 시행한다. /양성운 기자



태광그룹은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직원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조직문화 실천약속'을 선정해 공표했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조코비치, US오픈 정상...24회로 메이저 최다 우승 타이 /사진 뉴시스
▲'평창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마무리...단체·혼합복식 메달

▲'기부 천사' 추신수에 취약계층 군인들 감사 편지
▲배지환, 5경기 연속 안타...타율 0.245



▲호주교포 이민지, LPGA 크로커 퀸시티 챔피언십 우승 /사진 뉴시스
▲독일, 농구월드컵 첫 우승...결승서 세르비아 제압